2024년 4월 11일 [3.3] 목요일

Información 한Gua 한과정보

한과정보

기준환율	팔때
₩1,363.90	Q7.61
송금시	살때
₩1,350.70	Q7.99

대사관 : 2382-4051~55 / embcor.gt@mofa.go.kr / 긴급:3368-9333 / 한인회:2445-6461

윤 대통령 "국정 쇄신해 경제 · 민생 안정" 총리 · 용산 참모진 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4·10 총선 참패 뒤 국정 쇄신을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였고,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28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 쇄신을 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되야 한다”며 “비서실의 저를 포함한 정책실장과 모든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했다”고 말

새로운 소식

Silk 슈퍼 4.11 개업 (3페이지 참조)

GSE 직원모집 (44페이지 참조)

Óptica Exprés
① Boulevard Los Próceres 16 Av. Esquina 17-62 Zona10
② Blvrd. Principal San Cristóbal Plaza Futeca, Local 13 Sector B-1, Z.8 Mixco
③ Eskala Roozevelt Calzada Mateo Flores Z.2 mixco
2258-9667, 2250-6419
Opticaexprés

eclipse & mariposa
1F Restaurante
BAR
가족노래방
2F Karaoke
36 av 0-37 Zona 7 Col. Toledo
전화번호변경
tel. 5633-1949

행복 과테골 家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
♣육개장
♣청국장
♣알탕
♣칼국수
♣쫄면
♣돌솥비빔밥
♣불고기
♣돈까스

♣김치볶음밥
♣짬뽕밥
♣보쌈, 족발
♣오리로스, 훈제
♣생삼겹살
♣양념통닭
♣후라이드통닭
♣김치 판매
♣영양탕(매주화요일)
♣닭,오리 백숙(오전예약)
♣출장뷔페/돌잔치/회식

이사칠칠-이육삼팔 / 이사칠칠-이칠칠오 / 오삼영사-사일사오
46Calle 6-87 Zona 12 Col.Montemaria 3 / 월~토 12시부터 영업



순풍식당

순대국밥전문
순대곱창볶음
순대 떡볶음
야채 불고기
북어 콩나물
소머리 국밥
해물 순두부
오상 불고기
쭈꾸미 볶음
쭈꾸미 해물탕
돼지머리 주문
머리고기

곱창전골
제육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육 계 장
설 렁 탕
삼 겹 살
만 두 국
술 국
순 대
찐 만 두
홍 어 회

포장 및 배달 합니다.
(로데오 통합 배달)

위치 : 아람정육점 옆
32ave 1-34 Z.7 utatlan 1
5577-7686, 2508-5635

OPEN

Silk®
Korean Market



2024.04.11

15 Avenida 6-01, zona 13. Centro
Comercial Century Plaza

silk_gt Silk GT

골든그린과테말라에서

함께 성장할 소중한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분야: 생산관리(봉제관리, 후공정 유경험자 우대)
- 지원방법: 인사과 이메일(rrhh@4goldengreen.com)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보내주세요.

ESTAMOS CONTRATANDO...

- Puestos disponibles: Asistente de Imp/Exp con experiencia
- Si está interesado(a) envie CV al email: rrhh@4goldengreen.com
- Página Web: http://4goldengreen.com

GOLDEN GREEN



Cogent Solutions

박스 테이프 2" - 3"

마커지 & 재단용지

SGS무독성 테스트 완료



박스 테이프, 마커지는 과테말라 **'최저가'** 이며
마커지는 **'원지를 한국에서 수입해'** 과테말라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노란 안료가 들어가지 않은 **'투명 고급 테잎'** 입니다.

3873-8780(김율 법인장) E: ykim@syn-say.com

KL PRIMETEX 에서 함께 하실 인재 여러분을 모집 합니다.

1. 모집 부문 및 인원

영업팀 (생산 및 관리)	0 명
원단팀 (생산 및 관리)	0 명
관리팀 (수출입 및 총무)	0 명

2. 자격 사항

1) 모집 부서에 해당하는 신입 및 경력자
2) 스페인어 필수 / 영어 가능자
3) 과테말라 거주자
4) 해외 출장에 문제가 없는자

3. 제출 서류 및 전형 방법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사진 포함)
경력자의 경우 이력서에 경력사항 상세히 기재 요함
1차 서류 전형 후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4. 서류 접수

E-MAIL 접수 (yscho@klguate.com)

했다. 다만 외교와 국방의 안정성을 고려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참모들은 사의 표명에서 제외됐다.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소통에 나서는 등 국정 기조에 변화에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경제와 민생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한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한 적이 없다.

한겨레

교육부, 대기질 악화 "추가 공지까지 휴교"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쓰레기 매립지 화재로 과테말라시와 주변의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 온 교육부는 10일 공지를 통해 "태평양 방면 22km 지점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대기의 질이 악화되어 추가 명령이 있을 때 까지 대면 수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Anabella Giracca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질 악화에 따른) 무기한 대면수업 중단 조치는 재난대책본부(CONRED)와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9시 기준 과테말라시의 공기질 지수는 136으로 '나쁨' 수준이며 미세먼지 농도도 49.8(ug/㎥)로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10배 이상 높은 상태다.

재난대책본부(CONRED)는 11일 과테말라에 다가 온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y502

매립지 화재 "주말까지 진압 예상"

지난 4월 7일 아마띠뜰란 쓰레기 매립지의 화

한국 꽃집
CONFLOR
: conflor guatemala
Tel. 4069-5410 / 3042-6968
기억하고 싶은 모든 순간을 CONFLOR와 함께 하세요!!
감사와 축하의 자리에, 향기로운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려요.
한국 포장 재료와 자연미가 돋보이는 플라워 스타일
개업 및 결혼식을 빛내 줄 새로운 개념의 세련된 축하 화환 및 모든 경조 화환

SHAOXING INTERNACIONAL LOGISTICA, S.A. 샤오싱 로지스틱스

Col. El Naranjo, Interconexion Naranjo, Parque Industrial Las Tunas, Lote 4A Bodega 1, Zona 4 mixco

합리적인 가격와 신속한 통관으로
고객님의 화물을 과테말라까지 안전하게 가져다 드립니다.

중국-과테말라 택배서비스 개시

: 저장성 ZHEJIANG 창고까지 물건을 보내주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택배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FCL(풀 컨테이너) 20피트 $2,250 / 40피트 $2,750 (2024.4.14까지 유효)

LCL $ 55 / cbm (puerto base)



문의 : Whatsapp 502-5124-7454 / TEL. 502-2254-6821
이메일 : shaoxinginternacional.logistica@gmail.com

제트 여행사
Jet Express
Travel Agency & Tours

현지인분들을 위한 한국투어 9월1일 ~ 9월10일

South Korea Round Trip_9 Nights 10 Days

1. 여행일정 - 서울.경주.부산.서울.인천출국.
2. 숙박 - Hotel President (시청앞) 부산호텔.전통 한옥숙박
3. 항공/차량 - AEROMEXICO 및 KTX, 남산케이블카, 전용관광버스
4. 동행 - 멕시코 항공사 및 제트여행사 대표 동행.
5. 가이드 - 한국어.영어.스페인어 (3개국어 입체식 가이드)
6. 식사 - 한국전통음식 및 지역별 특식
7. 여행 비용 - 1인 $3,750.00

2개 국가에서 선착순 한정인원 모객 (다문화 가정 환영합니다.)



mail : jetexpressgua@yahoo.com / 13 Calle 3-40 Local 41 2 do Nivel Edificio Atlantis Z.10
Tel : (502)2385-4646 직통전화 : (502)2383-4324 HP : (502)5867-5867



재가 발생한 이 후 4일 동안 소방대와 응급구조대에 필요 장비를 지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던 정부가 화재가 진압되지 않자 10일, 해당 지역을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지역으로 선포했다.

쓰레기 매립지의 화재는 지표면보다 땅속 지하에 묻혀 있는 폐기물에서 계속되고 있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이번 화재가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화재원인을 찾기 위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대책본부는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75%에서 진압작업을 벌여 40% 지역의 화재진압을 완료 했으며, 변동사항이 없으면 주말까지 나머지 화재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y502

스위스 정부도 검찰총장 등 부패인물 제재, 검찰 반발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과 쿠쿠리체 검사 등 정부인사 5명이 스위스 정부로부터 부패인물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았다.

스위스 정부는 10일 오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새 대통령의 취임을 막으려 했던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과, 검찰의 Ángel Pineda, Leonor Eugenia Morales Lazo de Sánchez 검사, Rafael Cucuriche 검사 및 Fredy Orellana Letona 판사에 대해 입국금지와 함께 관련자들의 재산에 대해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총장과 검사 및 판사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제재 조치가 발표되자 검찰도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러한 허위적이고 편향적이며 반민주적인 제재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과테말라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정부 기관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Soy502

고기전문식당 RESTAURANTE HAN GUK GWAN

한국관



냉면전문식당 그외 다양한 메뉴 / 넉넉한 주차공간 보유 (대리운전 콜 서비스)

연중무휴 / 이사삼구-오구이칠 / 2a. calle 33-14 Z.7 calzada mateo flores

체 리 쉬





여성의류.가방.신발.악세사리.영양제.
화장품.이불.도자기류.다이어트 제품.
애견간식.여러가지 쇼품들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휴일
Tel 오영영영 - 칠오공삼
2calle 33-14 zona.7
Calzado mateo flores
한국관 입구 옆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 인면수심 남성들 징역 20년

딸들에게 몹쓸 짓을 한 남자들에게 연이어 중형이 선고됐다. 9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테무코의 형사법원 재판부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자는 형기를 채우고 만기 출소해도 피해자인 딸들을 만나지 못한다. 재판부는 출소 후 10년간 딸들에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남자는 4명의 딸을 둔 재혼가정의 가장이다. 2명의 딸을 둔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가정을 이룬 후 2명의 딸을 낳아 딸부자가 됐지만 딸들을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2명의 의붓딸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2명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남자는 딸과 단둘이 집에 있을 때 몹쓸 짓을 저질러 부인은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현지 언론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들이 용기를 내 사건을 신고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남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면서 "피해자인 4명의 딸이 모두 검찰에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칠레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건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때문이다. 앞서 7일 테무코의 형사법원 재판부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세 남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난산 후 위중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닥터헬기에 실려 전원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올해 17살인 피해자는 칠레 라아라우카니아 지방 갈바리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테무코에 위치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은 산모를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를 동원했다.

겨우 생명을 건진 피해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부라고 의사들에게 털어놨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피해자는 "7살 때부터 아버지가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살부터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장장 9년간 성폭행에 시달리다가 아버지의 아기까지 임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딸을 성폭행한 2명의 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지만 연이어 동일하게 20년 징역형이 내려지자 기계적인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양형만 본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샬롬여행사
(SHALOM TOUR)
CALZADA ROOSEVELT 33-86 Zona 7
EDIFICIO ilumina # 802 호
2439-7650, 2439-7706, 5990-7197
shalomlim@hotmail.com, shalomlimgua@hanmail.net

주소 이전 : CALZADA ROOSEVELT 33-86 Z.7 EDIFICIO ilumina # 802 호

최근 항공권 요금 인상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항공사 운항 시간 조정으로 티켓을 미리 발권하신 분들은 탑승전 꼭 운항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출발 항공권도 발권합니다)

소나 7 아람 옆
로데오마트2호점
22215364
아주편리한 위치

한인교회 길목
로데오마트본점
24339015
층 본점 물건이 가장 많아요

소나 14 바로옆
로데오마트3호점
23670137
아람입점마트

맛있는 쌀
12월30일 입하









라 이 프



운동할 때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3



바나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과일 중 하나다.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대와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데, 특히 운동하는 사람에게 간식으로 안성맞춤이기도 하다. 운동하는 사람에게 바나나가 주는 유익한 점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을 알아보자.

▶ 바나나가 건강에 유익한 점

1. 에너지 공급원
바나나는 당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속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적인 삶을 살거나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영양소와 비타민 공급
바나나는 비타민 B6(피리독신), 비타민 C, 마그네슘,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러한 영양소는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개선, 신경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장운동 개선
바나나에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식이섬유소는 소화를 돕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감정 안정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운동할 때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3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식품을 알아봤다. 이 식품들은 에너지 보충, 근육 회복, 영양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운동 효과에 도움을 준다.

1.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와 같은 견과류는 운동 전후에 섭취하기 좋은 고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운동 전에는 체내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여 지구력을 향상하고 근육 손상을 예방하고,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돕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염기성 식품으로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촉진한다.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과식을 억제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 및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여 염증을 감소시키고 근육 손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2.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품으로 운동에 필요한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는다. 운동 전에 섭취하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상을 예방하며,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돕고 염증을 감소하기에 좋다. 또한 아미노산도 풍부하여 근육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기도 한

중국성
JUNG KUK SUNG
Auténtica Comida China-Coreana
매주 수요일 휴무 ※ 신속배달 ※
세트메뉴 1인 SET, 2인 SET, 3인 SET
별미메뉴 매콤한 술안주 Pollo Picante
등갈비 튀김/굴짬뽕(하얀,빨간)
신 메 뉴 난자완스, 불족발 개시
2212-5639,2439-3508,5005-3567 카톡 //WhatsApp 주문가능 / 36Ave. 1-59 Z.7 Col. Toledo

HANSAE GUATEMALA

법인과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내용

구 분	모집 부서	지원자격	업 무	우대사항	근무지
경력 (정규직)	영업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선임 ~ 책임급 3. 영어 (IH~AL) or 스페인어 필수	원단 개발 본작업 업무	원단 생산 경험자	Guatemala City zona 10 "Zona Pradera"
경력 (정규직)	인사 구매총무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선임 ~ 책임급 3. 스페인어 필수	인사 / 행정 / 구매	상경계열 섬유 업계 이해도 스페인어(C1 이상) 영어 (AL 이상)	Guatemala City zona 10 "Zona Pradera"

■ 공통필수 자격요건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원 접수

- 접수기간 : 2024.04.10 - 채용 시 마감
- HANSAE PRADERA 채용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제출
  jykang@hansae.com

■ 전형 및 일정안내

인적성검사 ▶ 법인면접 ▶ 본사면접 ▶ 최종면접

*1차면접시 별도 언어 TEST 진행

■ 급여 수준

당사 내규에 따름

■ 문 의 처

- HANSAE PRADERA 채용담당자 jykang@hansae.com

■ 기 타

-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됩니다.
- 1차 면접시 제출서류
  : 최종 졸업(예정)증명서(재학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기타 자격증 사본
- 최종 면접시 제출서류 : 1차 면접시 제출 서류에 대한 원본

다. 또한, 운동으로 소실된 칼슘을 보충하고, 다른 유제품보다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

3. 닭가슴살
바나나와 삶은 닭가슴살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공급, 에너지 보충, 글루타민 공급과 함께 영양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바나나와 닭가슴살은 각각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이 보충되어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게다가 바나나는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닭가슴살은 비타민 B, 철분,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다. 또 닭가슴살에 풍부한 글루타민은 근육의 회복을 돕고, 근육 피로를 감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바나나와 함께 먹지 않더라도 운동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식품이다.

커피, 우유, 맥주만 마시면 꼭 설사하는 사람 보세요

커피나 우유, 맥주 등만 마셨다 하면 꼭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음식 속 성분이 장을 자극하거나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어떤 성분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커피, 위산 분비 촉진해
커피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이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은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 위산에는 소화 효소가 섞여 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시면 소화 과정이 빨라져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이 짧은 시간 안에 장으로 내려가 배변 활동을 촉진한다. 게다가 커피는 위 말단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가스트린 분비를 늘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위산 분비·이자액 생산을 유도하면서 위·소장·대장 움직임을 촉진해 변의가 느껴질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변비인 사람들이 배변을 촉진하기 위해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커피 성분에 의해 소화 과정이 빨라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커피 속 카페인과 지방산 등 물질이 위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우유 못 마시면 '유당불내증'일 수도
우유를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면 '유당불내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유당불내증은 몸에서 우유 속 유당(락토스)을 소화하지 못하는 대사 질환이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유당이 분해·소화되지 않으면서 소장에서 수분을 끌어들여 복부 팽만감, 경련, 설사 등과 같은 증상이 생긴다. 유당불내증이 심하지 않으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먹는 게 좋고, 심하다면 되도록 우유나 우유가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를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맥주 · 막걸리의 알코올, 장 점막 융모 자극해
맥주나 막걸리를 마신 후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맥주 ·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이 장 점막 융모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장 점막 융모는 장내 음식물의 수분, 영양소 등을 흡수하는데, 알코올로 인해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이 묽어진다. 알코올이 장을 자극하면서 장 근육 운동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수분이 장으로 충분히 흡수되기 전 변이 배출되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 술보다 맥주, 막걸리, 와인 같은 발효주는 당 함량이 높아 설사를 더 잘 유발한다. 일부 당은 대장에 남아 수분을 머금는 성질이 있는 탓이다. 또한, 알코올이 소화액 '담즙' 분비를 방해해 음식물 소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한 과민성장증후군 환자는 술 마신 후 설사를 하는 일이 더욱 잦다.

다만, 변비 환자라도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일시적인 배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알코올은 소변량을 늘려 체내 수분량이 줄면 변이 딱딱해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변비 악화를 부른다.



Top apparel 신입, 경력직 채용

TOP APPAREL과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사원을 찾습니다.

▲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 분야	모집 자격 요건
경리 (경력자)	
영업(주임, 대리급)	영어, 스페인어 능통자 우대

▲ 문의처 및 서류접수

3756-1476, marco@koatrend.com

영신 과테말라 신입 및 경력직 채용 공고

모집 부문	-생산 관리 및 영업 관리: 0명 (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국문 (사진포함) - 자기소개서: 경력자는 경력관련 위주 기술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한하여 개별 통보 후 2차 면접 진행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 정규직 - 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 지원
문의처 및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hyjung@youngst.com

정 치 · 경 제

175석 얻은 민주 '활짝'
108석 얻은 국힘 '침울'

"尹정권 중간평가 낙제점"
"與는 심판론 대신 정책 내세웠어야"
22대 국회서 제3지대 역할 거의 없을 듯

제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 과반이 넘는 175석을 석권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합쳐도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108석 밖에 얻지 못했다. 지역구 의석만 놓고 보면 민주 161석, 국힘 90석으로 민주당 완승 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위태로웠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국민의힘 참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2대 총선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으로 집계됐다. '비례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은 비례 12석을 가져갔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제3지대는 각각 3석, 1석, 1석을 얻었다.

이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84석,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이 17석,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각각 6석, 3석, 3석을 가져간 것과 비슷한 구도로 당시 위성정당과 합해 180석의 의석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원내 과반 달성을 넘어 '거대 야당'의 위치를 지키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주당 압승 요인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나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상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격이라는 의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이번에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즉 응징을 한 것"이라며 "지난 2년 간 윤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얘기했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은 실종됐고 의료개혁도 막판에 발을 빼 버려서 국민들 앞에 다시 윤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내세울 만한 국정운영의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 비대위원장 체제가 내세우는 어젠다가 부실했던 것도 패인으로 분석된다. 박 평론가는 "오죽 내세울 게 없다 보니 한 비대위원장이 야당 심판론을 언급했는데, 심판은 야당이 하는 것이지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은 미래와 청년, 통합, 정책을 얘기해야 하는데 86 운동권 심판하자고 했다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하자고 하고, 국회를 통째로 옮긴다고 하는 식으로 '막 던지기' 식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여당이 참패를 맛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여당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비윤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당 지도부를 꾸려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화두에 올랐다. 선전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3지대 정당은 5석도 채 안 되는 한 자리 수 의석을 얻는 데 그쳤고 녹색정의당은 원내에 단 1석도 얻지 못하면서 지난 2012년 정의당 창당 이후 약 12년 만에 원내정당에서 사라지게 됐다.

박 평론가는 "제3지대 정당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할 역할은 거의 없는 것"이라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의 경우 때 맞춰 민주당에 합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 당분간 개혁신당 이름으로 고군분투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통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00% 합당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당선 가능성도 희박해 출마할 사람이 없다"며 "조국 대표도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 의원직을 잃을 확률이 90%이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어 타이밍을 봐 통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하극상'에 외롭게 맞선
추미애와 조국의 '부활'

추미애 '윤석열 호위무사' 제쳐…"혹독한 심판"
조국 "윤 정권 심판…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친윤 검찰'과 악연 이성윤·박은정·차규근 입성
하극상 때 추 사퇴 방조 의혹 이낙연 최대 위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한 탓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하극상에 맞서 외롭게 싸웠던 추미애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상처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추미애 '윤석열 호위무사' 제쳐…"혹독한 심판"

추미애 전 장관은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

불어민주당의 경기 하남갑 후보로 나서 국민의힘 이용 후보와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이 후보를 제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는 5만1428표(50.58%), 이용 후보는 5만229표(49.41%)를 각각 얻었다. 그 격차는 1199표(1.17%포인트)였다.

특히 한국체육대 출신인 이용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아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인물이어서 추 후보로선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꼭 잡아야 하는 상대였다. 추 후보에겐 이번 선거는 악연이 깊은 윤 대통령과의 설욕전을 앞둔 스파링의 성격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초강성 우파 기독교 정당인 자유통일당의 주옥순 후보가 사퇴하는 등 이용 후보로의 막판 보수 결집 움직임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돼 예상과는 달리 꽤 고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었다. 제대로 해달라는 꼭 이겨달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선거였다. 박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직적인 관권선거 속에서 결국은 국민이 이겼다는 것이고, 하남시민이 승리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첫 여성 국회의장 유력 추미애 "국민 따를 것"

6선에 성공한 추미애 당선인은 오는 5월 30일 개원할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크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에서 맡고, 2명이 전, 후반기 2년씩 나눠 선출된다. 그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 이에 대해 추 당선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거부하고 불법과 비리, 특권과 반칙을 옹호하고 조사를 거부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것을 제대로 똑바로 일해야 한다는 민심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제가 그런 소신과 사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자리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특히 여야 협의와 중립을 구실로 역대 일부 국회의장들이 법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 처리에 수동적이었던 점도 비판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계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라며 "중립이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지난 국회를 보면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의장 손에 의해 좌초되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국회가 대의기구로서의 혁신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이지 야당 말을 들어주느냐 여당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 뜻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추미애 법무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하고 추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를 뒤지며 하극상을 벌일 때 국무총리이면서도 둘 사이에서 모호할 태도를 취

판 매



Z.7 Prados de santa rita 콘도집 판매, $300.000, 건평 300mts, 3층, 방4, 주차장3
Z.10 Airali 새아파트, $300.000, 115mts, 방3, 화장실2, 발코니 NEW
Z.10 Santa Maria $219.000, 100mts, 2룸, 주차장2
Z.11 Parque11, $135.000, 75mts, 방3, 화장실2, 주차장2
Z.13 Elgin2 동네, 주택(새집), $750.000, 427mts, 방3, 화장실 2.5, 정원 NEW
Z.13 NARAMA 아파트 원룸 스튜디오, 주차장 1, $125,000 NEW
Z.14 El Campo 동네 주택, $720.000, 372mts, 1층구조, 방4 NEW
Z.14 Balttica $370.000, 200mts, 방3, 주차장2, 거실2, 식모방, 발코니
Z.14 UNIO 아파트, $238.000, 118mts, 방2, 화장실2, 주차장2, 발코니
Z.14 Santa Ines 펜트하우스 $855000, 240mts, 방3, 주차장4, 넓은 테라스
Z.14 Santa Ines $530000, 175mts, 방3, 주차장2, 거실2
Z.15 Liv 아파트, $320000, 120 mts, 방3, 주차장2, 창고
San Cristobal 창고, Q4,000,000. 토지 775mts, 건축면적 750 mts
Alta vista 클럽 주택 판매 ($860,000) 및 임대($3,000) 건평 830mts, 3층구조

한인부동산
토지.아파트.주택.오피스.창고.상가/판매.분양.및 렌트
문의전화 : 5632-9095 (하나 김)
(hanakim3431@gmail.com)

하며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일방 사퇴를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새로운미래 대표인 이낙연 후보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선거비 전액 보전 득표율에도 못미치는 13.84%를 얻어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 24년의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친윤 검찰'과 악연 이성윤·박은정·차규근 입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과 정면 승부를 별러온 민주당의 전주을 이성윤 후보도 60%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당시 이 당선인은 최강욱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받고도 결재하지 않았고,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 등을 놓고 윤석열 총장과 충돌했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 사단에 '찍힌' 그는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최초로 기소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는 등 온갖 탄압과 수모를 겪었다. 대표적인 선거 공약에는 디올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변경 추진, 코바나컨텐츠 등 국민적 의혹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 관철과 '윤석열·한동훈 특검법' 발의, 그리고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등이 있었다.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 정신이자 정의다. 윤석열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법률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국정농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여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온갖 권력형 비리 의혹이 그 중심에 있다. 국정 난맥상을 원위치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윤 정권 심판…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멸문지화를 겪은 조국 전 법무장관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로 거듭났다. 조국당은 지난 2월 13일 창당 선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24.25%의 득표율로 비례대표 12석을 갖춘 원내 제3당으로 우뚝 섰다. 그동안 정의당이 채워주지 못한 대중적 진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란 기름에 조국당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의 물러서지 않는 싸움이란 불씨를 던졌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공약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등이다.

조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 뒤, 감사 말씀을 통해 "국민이 승리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조국당에선 '친윤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비례후보 1번)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비례후보 10번)도 국회에 동반 입성하게 됐다. 검사 재직 시 늘 불의에 맞섰다는 평가를 받은 박은정 당선인은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 징계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게 징계 이유로 보고 있다. 차규근 당선인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해자다.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이 변장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 것을 포착하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2022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한 뒤 직위 해제했다. 그런 일을 겪으며 '검찰 개혁의 투사'로 변신했다.

총선 끝나자 발표된 '국가결산' 나랏빚 1127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국가채무, GDP 대비 첫 50% 돌파
이례적으로 법적 기한 '4월 10일' 이후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90조 원에 육박했다.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부채 절반은 '미래 빚' 연금부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날 의결된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합계)는 1126조7000억 원으로 2022년 말(1067조4000억 원)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92조5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증가했고,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많아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l Consejo Asesor de la Unificación Pacífica de Corea en América Central y el Caribe
INVITACIÓN 초대합니다
Kday
GUATEMALA
2024 케이팝 페스티벌
2024 KPOP FESTIVAL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14 DE ABRIL 2024
10:00AM - 6:00PM
과테말라 산업공원 (Zona 9)
SALÓN 8
PARQUE DE LA INDUSTRIA
Síguenos:

1년 전(49.4%)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첫 50% 돌파다.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243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치다. 2022년 말(2326조 원)과 비교하면 113조3000억 원(4.9%)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액수를 말한다.

기재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증가와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 상승 등으로 지난해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가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2022년 말 907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967조4000억 원으로 60조 원(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충당부채도 1181조3000억 원에서 1230조 2000억 원으로 48조9000억 원(4.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2439조3000억 원)의 50.4%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라며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므로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남은 돈' 세계잉여금 2조7000억 원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대비 77조 원 줄었다. 총세입 중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 발표 때 제시된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보다 28조8000억 원 많은 규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역대급 세수 감소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다음 연도 이월액)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0조9000억 원(6.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해 유동·투자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대전·서울·과천청사 중 가장 비싼 청사는 세종청사(3조5083억 원)였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11조9833억 원)가 가장 비쌌고, 철도 중에서는 경부고속철도(7조777억 원)가 최고가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4월 10일' 넘겨 발표

한편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 이후에 발표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다.

사무용 인쇄기 임대

인쇄기, 토너, 잉크 판매
과테말라 전지역 기술지원



전화번호: 2217-6100
Whatsapp: 3216-0918
Comercial2.gt@grupocustom.com
www.GrupoCustom.com.gt

grupocustom GUATEMALA

10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10일) 다음 날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출기업 열 중 여섯 "벌어서 이자 갚기도 버겁다"

무역협회, 417개 수출기업 CEO 설문 결과
"이자비용 영업이익과 같거나 많다" 57.3%
감당 가능한 금리 3%대…절반 이상 4~6%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 도달 전에 지원 절실

우리나라 수출기업 가운데 10곳 중 6곳 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10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57.3%는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협회가 지난달 21~27일 417개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분기 무역 업계 금융 애로 실태 조사'결과다.

이 조사는 2022년 4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는 응답은 네 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이같은 응답 비율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72.9%나 됐다.

수출기업들이 이자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현재 대출 금리가 5~6% 수준이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4~5%(25.9%), 3~4%(19.2%), 6~7%(11.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원활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금리 수준은 '3% 이하'라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다.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4~6%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4%에 이르고 있다.

수출기업 경영자들은 건의 사항으로 '금리 부담 완화'(79.7%·이하 복수 응답), '대출·신용보증 한도 확대'(58.5%) 등을 꼽았다.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명한 집

매주 화요일 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MENU
떡만두국
떡국
닭똥집 볶음
오리훈제구이
생삼겹살
닭도리탕
부대찌개
오리주물럭
오리탕전골
삼계백숙
도가니 수육
소모듬 수육
수육전골
매운 등뼈찜
매운 꼬리찜
뼈없는 닭갈비
감자탕 전골
콩나물해장국

2시간전 예약
등갈비 김치찜
한방 굴보쌈
한방 토종닭
한방오리수육

MENU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콩국수
잡채밥
육계장
뚝배기불고기
된장찌개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우거지 갈비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흑마늘 삼계탕
들깨 삼계탕
삼계탕
오리탕 뚝배기
감자탕 뚝배기
설렁탕
월남국수
메밀소바
국물떡볶이





1calle 35-09 Z.7 Col. Toledo / 3008-1800, 2433-9788(배달합니다)

사 회

선거만큼 치열했던 개표방송 경쟁 MBC 시청률 1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10일 뉴스와 개표방송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MBC였다.

11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 MBC가 방송한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3부는 시청률 11.7%로 같은 날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중 가장 높았다.

MBC의 개표방송 2부와 1부 역시 각각 11.4%, 8.2%의 시청률로 다른 방송사들의 개표방송과 특집 뉴스보다 높았고, 4부는 6.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KBS 1TV '2024 총선특집 KBS 9시 뉴스'가 7.7%의 시청률로 MBC의 뒤를 이었으며, SBS의 '2024 국민의 선택 특집 SBS 8뉴스' 시청률은 6.2%였다.

이 밖에 SBS의 개표방송 '2024 국민의 선택' 4부는 5.6%, KBS 1TV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3부는 5.3%를 각각 기록했다.

종편 채널 중에선 TV조선의 '결정 2024 특집 TV조선 뉴스9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부가 3.2%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고, 채널A의 '특집뉴스A'가 2.9%, '나의 선택 2024' 1부가 2.5%로 뒤를 이었다.

각 방송사는 이번 총선을 대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각종 통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화려한 컴퓨터그래픽(CG)으로 볼거리를 더했다.

보건의료노조 "생명 살리는 데 여야 없어…진료거부 해결해야"

"총선 결과는 민생 외면하는 정권 심판…의대 증원이 가장 시급한 현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1일 이번 총선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논평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가장 절박한 개혁과제로 접근하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진료 거부 사태 해결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직역 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여 의료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부터 수습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명 진 정 밀

뚤람수 로떼 9 만사나 A 섹또르 5
소나 4 데 믹스꼬
전화 : 이사삼사-이이오이/일오삼사
팩스 : 이사삼칠-팔구영칠
핸드폰 : 오영영사-영팔영육

마이깡 몰드 제작
재단기 부속 판매
패턴 포마 아크릴
마카지,패턴지,밑종이

미싱부속 판매
봉재용 소모품
각종 바늘 판매



이들은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의사 진료 거부 사태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확히 확인해주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출 하락에 임상시험 지연까지 '의대 정원 파장'에 속타는 제약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면서 환자들만큼이나 속 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제약업계다. 환자 수 감소는 단순히 약 사용자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약 출시의 필수 단계인 임상시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임상시험을 책임지는 의대 교수들은 사표까지 던진 상태다. 제약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항암제·신약 임상 타격 커… 기약없는 임상시험 개시

현재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인해 임상시험에 타격을 받은 제약사는 대부분 항암제나 신약의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제약사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부 회사에선 임상시험 무기한 연기까지 걱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치매 신약 '도나네맙'을 보유한 '일라이 릴리'다. 본래 도나네맙은 5월 중 환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6월 중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료축소로 환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임상시험 시작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일라이 릴리 관계자는 "도나네맙 임상시험이 무산되진 않을 것이다"며 "물론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라, 사실상 임상시험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임상시험 개시에 어려움은 있다"고 밝혔다.

항암제를 다수 보유한 제약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는 "항암제는 타과 협진이 필요한 절차가 있어 전공의 파업이 임상 개시와 등록에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타과 협진 의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환자가 클리닉 등 다른 병원에서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본사와 긴밀히 소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 곳도 있다. 글로벌 제약사 A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교수의 사직이나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해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임상시험 종료

CSITE Texpia, S.A.

채 용 안 내

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 분야	모집 인원	자 격 요 건
생산 총무	0 명	신입/경력자(3년 이상) 동종 업계 우대 스페인어 필수 및 영어 능통자 과테말라 거주자 및 해외 출장 가능한 자

2. 전형 방법 및 제출서류

- 1차 서류 전형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요망 (사진포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됩니다.

3. 문의처 및 이력서 접수

- 이메일(email) : estelacho@c-site.co.kr & boramchan@c-site.co.kr
- 전화문의 : 3107-6861, 3302-5260

시점을 변경해야 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의대교수들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되고, 전공의 복귀 지연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B사 관계자도 " 임상시험은 교수들이 직접 진행하는 거라 전공의나 인턴 이탈이 있다 해도 큰 영향을 받진 않았고, 사직으로 임상시험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의대 교수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거라 본사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하면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부디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지 않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임상시험 중단 위험은 낮다고 보고, 당장의 매출하락이 더 걱정이라는 제약사도 많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익이 대학병원에서 나오는 글로벌 제약사 몇 곳은 이 상황이 한 달만 더 지속해도 영업·마케팅 부서를 절반으로 감축해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항암제를 다수 보유한 C사 관계자는 "임상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매출이 더 걱정인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암 등 중증진료 시스템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암환자는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니 지금까지 매출엔 큰 영향이 없었다"며 "문제는 신규 환자 감소가 매출로 이어지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다"고 했다.

"환자 못 떠나" 의사들도 고민 커

실제 임상시험을 맡은 의대교수들의 상황은 어떨까?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상황 개선을 기다리며 예정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의대 교수들은 자신을 믿고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한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 다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을 진행 중인 D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생이 증원될 경우 도저히 정상적인 연구와 진료를 이어갈 수 없고, 업무 과중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가 온 상태다"며 "사직 생각이 간절하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해 약 투여만 기다리는 환자를 생각하면 병원을 박차고 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임상시험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국내에서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진다"며 "사직서 제출을 망설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사직하면 임상시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단 점이었다"고 밝혔다.

모 약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 E 대학병원 교수도 "수리가 된 건 아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 제약사에서도 계속 문의를 하는데,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에 일단은 임상시험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다"며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 대학병원 교수는 "병원이 심각한 적자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더 걱정이다"며 "빨리 상황이 해결되어 임상시험은 물론, 진료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대학병원의 적자는 심각한 상태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했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한 달 간 511억 원 손실을 봤고,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순손실만 4600억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맞아 경남교육청 안전주간 운영

지난달 18일 오후 2시께 경남 통영시 제석초등학교 본관 1층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서 지상 5층 건물인 본관 대부분을 불태웠다. 재산 피해액이 경남도교육청 추산 100억원에 이르렀다. 제석초등학교는 통영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로, 화재 당시 본관에는 학생 1138명과 교직원 74명이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이 신속하고 침착하게 학생들을 대피시켜,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모두 무사히 운동장으로 탈출했다. 처음 불을 발견하고 직접 불을 끄려고 시도했던 교직원 1명만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뿐이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원들은 “‘대형사고는 우연히 또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와 수백 차례 징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을 고치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세월호 참사일이 포함된 주를 ‘경남교육 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추모행사와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세월호 기억의 벽’ 앞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식을 연다. 앞서 2015년 8월 도교육청은 경남교육연수원 안쪽 벽면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명복을 기원하는 마음

을 담아서 '세월호 기억의 벽'을 만들었다. 추모식에는 박종훈 교육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 별관에서는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오후 4시20분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이 상영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 등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부재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경남교원합창단에서 활동하는 교사들과 음악강사들은 추모연주회를 연다. 도교육청 본관에서는 15일부터 추모사진전을 연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남도교육청은 누구나 추모글을 쓸 수 있도록 교육청 누리집(gne.go.kr)에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 교육청 직원들은 17일 오후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안전주간 동안 세월호 계기교육과 재난안전교육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를 무시하면 결국 대형 참사를 겪게 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의 교육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진현정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장학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마다 4월16일 추모식을 열었는데, 10주기를 맞은 올해는 추모문화제를 여는 등 예전보다 규모를 키워서 다양한 추모행사와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중 쓰러진 20대 뇌전증 환자 공무원 응급조치로 의식 회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부산 한 투표소에서 투표 중 쓰러진 시민이 공무원의 발빠른 조치로 의식을 되찾았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진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53분쯤 부산진구 가야2동제4투표소(가야벽산아파트)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간 20대 남성 A씨가 '억'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윤 모 주무관(30대)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입에 거품을 물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심폐소생술을 한 지 2~3분 만에 A씨의 의식이 돌아와 확인한뒤 119 상황실과 소통하며 지시에 따라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A씨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뇌전증 환자였던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표소 안에 뒤집어져 있던 A씨의 투표용지는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에 넣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주무관은 "직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 조국 당선되자마자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맡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11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51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을 기록 지난 2022년 2735명 대비 6.7%(184명)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만3429명)과 비교해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000여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해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지난해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경찰은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버스에서 곤히 잠든 노인 다시 보니 심정지…승객들이 구했다

부산 시내버스에서 심정지한 80대 노인이 함께 탄 승객들의 빠른 응급조치로 목숨을 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200번 버스 안에서 80대 남성 A씨가 좌석에서 창문에 기대 미동이 없는 상태로 앉아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 박창수씨(63)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가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운전기사 박씨는 다른 버스 승객들과 A씨를 버스 바닥에 눕혔다. 박씨에게 A씨의 상황을 알린 여성 승객이 곧장 휴대전화를 들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씨는 CPR(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A씨 옆에 앉아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 이들은 119구급대원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켜둔 채 실시간으로 환자 상황을 전달하고 119구급대원의 지시대로 CPR을 이어 나갔다. 약 8분간 CPR을 하고 있던 박씨 팔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직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이었다. 교복을 입고 박씨 뒤에서 있던 10대 남학생이 박씨의 뒤를 이어 CPR을 진행했다.

버스 안에 있던 시민 10여명은 A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일어서서 이 상황을 지켜봤다. 일부 시민들은 재차 119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직전 A씨는 “후”하며 긴 숨을 내뱉었다. 119구급대원들은 버스 안에서 6분여 응급 처치를 한 뒤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가 병원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시민들은 박씨에게 출발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한·중식 전문



한식



중식





고기



주소 : 11 calle 5-08 Zona 9
오영일팔-일일칠육/이삼삼일-삼사일사/이사사일-오이육육

배달은 PedidosYa 를 이용해 주세요

국 제

총선 외신 반응 살펴보니…
"尹 낙제점, 레임덕 불가피"

주요 외신들은 집권 여당이 크게 패배한 한국의 4·10 총선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보수 동맹이 총선에서 큰 차질을 빚게 됐고,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양도소득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등 윤 정부가 추진해온 투자자 친화 정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선거가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면서 법인세 인하, 기업친화정책, 의대 정원 확대 등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국내 이슈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봤다. AP통신은 "야당이 국회 통제력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낮은 국내 지지율,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씨름하고 있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제를 둘러싼 분노 속에 치러진 한국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다고 타전했다. 이 매체는 대파 값 875원 발언 등을 언급하며 여당이 우려했던 개헌 가능선(200석)을 내주는 사태는 피했지만, 향후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번 총선 결과는 정당에 대한 여론을 넘어 윤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미칠 여파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자 1면 기사에 서울발 총선 기사를 담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궁지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야당이 과반수를 잡으면 윤 정권은 5년 임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회에서 소수 여당으로 남으면서 입법, 대담한 예산 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날 오전 개표 상황을 전한 온라인 추가 보도에서는 "야당에서 어필한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찬성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한 추진력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진보 성향의 TV아사히는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고, 취임 이후 진행해온 한일 관계 개선에도 그림자를 지우게 됐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이번 총선 결과가 "윤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과반수 탈취를 목표로 했으나 닿지 못했다"고 전했다.

극우 산케이신문은 "이번 총선은 야당이 과반수(여소야대)인 기존 '트위스트 상태'를 해소하고 윤 정권의 국정운영 안정화로 이어질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여당의 참패로 윤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야당은 총선에 앞서 정권 심판에 호소했다"면서 한국 언론들의 보도 상황을 전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한국 정치가 양극화와 정책 부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 나왔다.

리민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지 매체인 신징바오(신경보)에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정당의 관심은 국민의 이익이나 정책이 아닌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기울었다"면서 "피습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등 정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중간고사에서 낙제점을 받게 됐으며, 남은 임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직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 대북 강경 기조 등 외교 정책의 기존 방향성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윤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2년 전 이미 분열된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집권 초기부터 국회 내 민주당의 강한 반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대외외교 정책을 뒤집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전략적 분열은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3연패를 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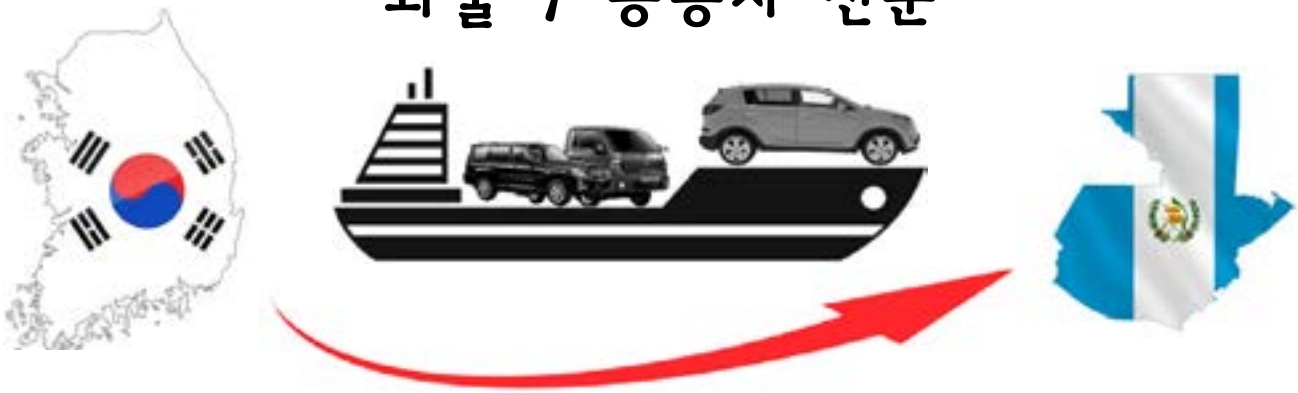
"하마스 피랍인질 상당수 이미 사망"
가자전쟁 휴전 '먹구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당시 납치했던 인질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 측 고위 관계자는 이날 NYT에 "이스라엘과 협상

자동차 및 부품 구매대행

화물 / 승용차 전문



한국에서 차량 및 부품 구매 대행

39 calle 18-62 Zona 12 ciudad capital

문의 연락처 : 3807-2004

카카오톡 ID : eseuenstar07

자동차 정비 / 부품판매



현대 / 기아 / 쌍용 전문

엔진 / 미션 / 인젝터

디젤 엔진 (가솔린 ×)



중인 휴전안을 충족하는 인질 40명이 가자지구에 생존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 고위 관계자도 하마스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 받았으며, 하마스가 협상 중재국들에 인질 확보에 실패한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는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230명 중 지난해 11월 일주일간의 휴전 기간 석방되지 못한 129명이 남아 있다. 이스라엘은 그중 최소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생존 인질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해 왔다.

하마스 피랍 인질 중 노약자와 여성 등 40명을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6주씩 교전을 중단하는 휴전안이 지난 1월부터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논의됐다. 그러나 인질·수감자 교환 비율과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철수 등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과 재개를 반복했다.

지난 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를 비롯한 당사국 대표단이 만났지만 휴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마스가 노약자·여성 인질 40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전 중단의 전제 조건인 인질 석방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6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이 기약 없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엔화 달러당 153엔대로 엔저, 34년 만에 최저 수준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3엔이 무너지며 1990년 6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에 시장 개입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11일 일본 공영방송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10일(현지시간) 엔화는 한때 달러당 153.24엔에 거래됐다.

엔화 약세(엔저)를 부추긴 것은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였다. 장 초반 151.8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엔·달러 환율은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5%라는 발표가 나오자 급락했다. 3월 미 CPI 상승률은 지난해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NHK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CPI 상승률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엔화 약세의 주요 원인인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당분간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엔화를 파는 움직임이 강해져 엔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의미다.

엔화 환율은 지난달 27일 151.97엔까지 떨어진 이후 일본 정부의 개입 시사로 하락세가 잦아들었지만, CPI 발표로 하루 만에 1엔 이상 떨어진 것이다. 닛케이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PGIM픽스트인컴의 로버트 팁 채권최고투자전력가 발언을 인용,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한 엔화 약세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든 수단 배제하지 않겠다" 발언에 엔저 주춤

일본 정부는 즉각 시장 견제에 들어갔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환율은 시장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지만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움직에는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이 스즈키 장관 발언 전 "지나친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재차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NHK는 "간다 재무관 발언 이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일본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에 엔화 강세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美 3월 CPI 상승에 국채 수익률 급등…4.5% 넘어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반영돼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해 상승한 가운데, 10일(현지시각) 미국 국채 수익률이 4.5%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

인베스팅닷컴과 CNBC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4.537%를 기록했다. 전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수익률은 4.36%였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도 같은 시간 4.95% 상승했다. 전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수익률은 4.73%였다.

이날 발표된 미 3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이 불거진 영향을 받았다.

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3.5% 상승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0.3%, 3.4% 상승이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8% 올랐다. 예상치는 0.3%, 3.7%였다.

트레이딩 플랫폼 트레이드스테이션의 글로벌 시장전략 책임자 데이비드 러셀은 "우리는 강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이제 양날의 검으로 변해 인플레이션을 예상보다 더 끈질기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투자자들은 이날 미 증시 마감 무렵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0% 이상으로 반영했다. 전날 이 확률은 40% 대였다.

달리는 차 밖으로 두 아이 던진 엄마 "검은태양 종말론에 심취"

미국에서 어린 두 자녀를 달리는 차 밖으로 던져 생후 8개월의 아기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개기일식을 앞두고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와 ABC7 등에 따르면 LA 경찰국은 용의자 대니엘 존슨(사망, 34세)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 등 조사 결과 존슨이 점성술사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존슨이 온라인에서 '대니엘 아요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점성술사라고 전했다.

존슨은 지난 5일 해당 계정에 "깨어나라 깨어나라 종말이 왔다(THE APOCALYPSE IS HERE).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은 들어라. 당신이 믿는 것을 선택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존슨은 "이 일식(eclipse)은 영적인 전쟁의 완벽한 본보기(epitome)"라며 "세계는 지금 분명히 변하고 있다. 당신이 한쪽을 고를 필요가 있다면, 당신의 생에서 옳은 일을 할 시간은 지금"이라고 쓰기도 했다. 그의 엑스 계정 팔로워는 10만4600명에 달한다.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는 지난 8일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부터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이 7년 만에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존슨은 개기일식이 일어난 당일인 8일 오전 3시40분께 LA 카운티의 자택에서 동거남인 제이엘런 채니(2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신의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9세와 생후 8개월인 두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그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 문을 열고 두 딸을 차 밖으로 밀어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던져진 생후 8개월 아기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고, 9세 딸은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받고 있다.

존슨은 아이들을 밀어내고서 30분쯤 뒤 인근의 시내 도로에서 시속 100마일(약 160㎞)이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 가로수

매주 일요일 휴무
월요일~토요일
오전9:30~오후8:00

DON-BAB

DON BAB

솔트 삼겹살	Q85
고추장삼겹살	Q85
간장 삼겹살	Q85
돈까스	Q85
제육덮밥	Q80
불고기덮밥	Q80
DON-라면	Q65
떡볶이(2인분)	Q.120
김밥/불고기김밥	Q.75/Q.85

모둠튀김	Q.75
새우튀김	Q.150
어묵우동	Q.80
닭강정	Q.80
찐 만두(6pcs)	Q.70
튀김만두(6pcs)	Q.70
쫄면	Q.80
쫄면 짜장면	Q.80
볶음밥	Q.75






배달 주문 받습니다
삼공오육-팔일칠육
DONBAB-7

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결론지었다.

존슨은 그동안 운영하던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3세 때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한 뒤 샤머니즘의 길에 들어섰으며 "주술사(샤먼)와 의녀의 풍부한 혈통을 이어받아 영적인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 "직관적 안내와 원격 치유, 점성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총체적 치유에 이르는 근거 있는 접근법을 개발했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14개 이상 지역의 구독자들을 도와 왔다고 홍보했다.

"암 투병 어머니 위해" 밧줄로 에펠탑 100m 오른 여성

프랑스의 30대 장애물 경기 선수가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을 밧줄로 100m 올라가 로프 클라이밍 세계 기록을 세웠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아누크 가르니에(34)가 이날 오전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펠탑에 매달린 로프를 손으로 잡고 올라가 당초 예상했던 20분보다 빠른 18분만에 에펠탑 2층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올라간 높이는 100m로, 종전 남자 로프 클라이밍 신기록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토머스 반 톤더의 90m와 여자 신기록인 덴마크 이다 마틸드 스텐스가드의 26m를 모두 경신하고 새로운 세계 기록을 쓴 것이다.

가르니에는 2022년 자신의 연령대 장애물 경기에서 두차례 세계 챔피언에 오른 뒤 로프 클라이밍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목표를 세웠고,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을 그 무대로 삼았다고 한다. 가르니에는 "꿈이 이뤄졌다. 마법 같았다"며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해낼 거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가르니에는 암 투병 중인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암 예방과 환자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의 기금을 모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도전을 위해 1년간 훈련했다"며 "어머니가 암을 앓고 계시는데, 암 연구를 돕는 좋은 일을 위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가르니에는 다음 달 9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파리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고 올해 여름 파리올림픽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가르니에는 "나이는 34살이지만 몸은 20살"이라며 "몸 상태가 아주 좋은데 앞으로 10년 더 이렇게 지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미인대회 우승자 '야한' 휴가 동영상 공개로 왕관 박탈

말레이시아의 한 미인대회 우승자가 휴가 중에 찍힌 '야한' 동영상 때문에 타이틀을 날렸다.

아시아원 등 외신들에 따르면 2023 운덕 은가다우 조호르 미인대회 우승자인 비루 니카 테린십(24)이 '여왕' 타이틀을 포기했다.

이유는 태국 휴가 중에 노출이 심한 남성 댄서들과 함께 선정적으로 춤추는 동영상이 공개돼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에서는 "그녀의 사생활"이란 옹호적 입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인으로서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녀는 8일(현지시각) SNS를 통해 "부주의했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자신의 타이틀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곧바로 미인대회를 주최한 카다잔두순 문화협회(KDCA)는 같은 날 그녀에게 타이틀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결한 마음, 정신, 영혼을 상징하는 신화 속 전설 '후미노둔'을 표상으로 하는 미인대회의 우승자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리 길이만 135㎝, 롱다리 女의 말못할 '고민'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여성이 '롱다리'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털어놨다.

11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21세 마시 커린은 다리길이가 무려 135㎝에 달한다.

커린은 키가 약 208.2㎝에 장신이기도 하지만 유난히 긴 다리로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여성'이라는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커린은 큰키와 롱다리로 틱톡에서 인기를 얻으며 자신이 독특한 대접을 받는 것을 즐긴다고 털어놨다. 그는 "몇몇 사람들은 나를 슬렌더맨 같은 공포 영화 캐릭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슬렌더맨(Slender Man)'은 미국의 도시전설에 등장하는 괴물로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앙상한 가시나무 같이 빼빼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다. 2018년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커린은 "유치원 때부터 항상 남들보다 키가 커서 모든 사람보다 머리 위에 있었다"며 "어렸을 때는 큰 키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자라면서 내 키가 독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키가 큰 여성으로서 다른 키 큰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단점과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커린은 "모든 출입구를 다닐 때 고개를 숙여야 해서 망치로 부숴버리고 싶다"고 농담을 했다.

그는 "특히 데이트할 때 불편함이 더 커진다"라며 "대부분의 상대가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데이트에 관심이 없지만, 나보다 키가 훨씬 작은 남자와 데이트할 때마다 기분이 나빴던 적이 많았다. 그 남자들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커린은 "나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라며 "내 키에 맞는 긴 바지가 없다. 청바지 한 벌에 250달러(약 34만원) 정도를 내고 맞춤 제작을 해야 한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청바지는 두 벌 밖에 없다"고 말했다.

名家 명가



돼지국밥
활어회
염소탕
선지해장국
소곱창구이

고소하고 맛있는
"소 곱창구이" 개시
- 현지인 회식 -
삼겹살 무한리필 Q110
부페음식 / 단체김밥 주문
다양한 메뉴 / 점심 메뉴
일반 배달 합니다

매주 수요일 휴무 / 평일 9:30, 일요일 7:30까지 / 이삼구사-영일이일, 오칠영삼-일칠삼사, 삼팔칠일-육오육구

스 포 츠

케인, 한 시즌 만에 토트넘 복귀 가능성 뮌헨 '방출 명단'에 이름 등장!

누구나 돌아올 수는 있다고 예상됐지만, 이렇게 빨리 가능성이 등장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해리 케인의 토트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의 팀토크는 10일(한국시각) '충격 보고서가 5명의 바이에른 뮌헨 선수의 방출을 예고하며 케인 토트넘 복귀에 불을 지폈다'라고 보도했다.

케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자신이 프로 데뷔부터 줄곧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났다. 우승에 대한 열망을 해소하길 원했다. 독일 최고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케인의 계획은 올 시즌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바이에른은 DFB 포칼에서 탈락하며 기회를 놓쳤고, 리그에서도 선두 레버쿠젠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사실상 우승이 불가능하다.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강 1차전 원정에서 아스널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홈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바이에른의 극심한 부진과 함께 토마스 투헬 감독도 올 시즌 이후 팀을 떠날 예정이다. 투헬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바이에른은 선수단도 개편할 예정인데, 불과 한 시즌을 소화한 케인도 개편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팀토크는 '바이에른은 10여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 바이에른은 올 여름 투헬이 떠나면 다시 정상으로 팀을 되돌리기 위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리빌딩 과정의 일환으로 케인이 희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의 레퀴프는 바이에른이 이번 여름 최대 5명의 선수를 내보낼 수 있다고 했으며, 이 목록에 케인,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토마스 뮐러, 마누엘 노이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케인이 바이에른 리빌딩 작업으로 인해 빠르게 팀을 떠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인은 이미 이전에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복귀 가능성이 빠르게 등장했었다. 바이에른이 부진에 빠지자 첼시가 케인의 영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하지만 케인이 EPL로 돌아간다면 가장 우선순위는 여전히 토트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바이백 조항은 갖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해 9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우리는 케인의 바이백 조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었지만, 해당 조항은 직접적인 바이백 조항이 아닌 신사협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현재로서는 바이백 조항에 대한 어떤 확증도 없다. 내가 듣기로는 클럽 간의 일종의 신사협정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바이에른이 케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 토트넘이 구단의 결정을 알 수 있는 구단끼리의 일종의 신사협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백 조항은 없다고 언급했다.

바이에른 소식에 정통한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도 "토트넘은 케인에 대한 바이백 조항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단지 매칭 권리다. 뮌헨은 (케인에 대한) 제안을 받는 즉시 토트넘과 레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결국 케인이 바이에른 방출 명단에 올라 토트넘으로 향한다면 케인의 의지와 바이에른과의 협상 등 중요한 절차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승을 위해 떠났던 토트넘 영웅의 결단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케인 다음 시즌에도 바이에른에 남아

번역



한국어 스페인어

문의
5308
–
4441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위해 도전할지, 아니면 방출 명단에 포함되어 토트넘 복귀를 택할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강인 존재감, 스페인 매체도 인정 PSG 팀 내 최고 평점

이강인(22·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역전골 기점이 된 패스 등 날카로운 패스에 상대 골문도 2차례나 직접 위협했다. 스페인 매체도 파리 생제르맹(PSG) 선수들 최고 평점(공동)을 통해 이강인의 이날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이강인은 1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바르셀로나전에 선발 출전해 후반 16분 교체될 때까지 61분을 소화했다. 2-1로 앞서던 PSG는 공교롭게도 이강인이 교체된 뒤 와르르 무너지며 2-3으로 역전패했다.

지난 주말 프랑스 리그1 클레르몽전에서 교체로 나서며 숨을 고른 이강인은 이날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별들의 전쟁' 무대를 누볐다. 당초 프랑스 현지에선 이강인이 측면 공격수로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중원에 배치했다. 킬리안 음바페와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뎀벨레가 전방에 포진하고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가 중원에 포진하는 형태였다.

이강인은 경기 초반부터 존재감을 보였다. 전반 6분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날카롭게 휘는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노렸다. 슈팅은 다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27분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상대 골문을 또 노렸다. 이번엔 워낙 강력했던 슈팅에 상대 골키퍼도 잡지 못한 채 다급하게 쳐내야 했다.

후반엔 날카로운 패스로 바르셀로나 수비를 흔들었다. 후반 5분 비티냐의 역전골 상황에선 기점 역할을 했다.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나간 이강인은 비어있던 파비안 루이스에게 정확한 패스를 건넸고, 파비안 루이스의 침투패스가 비티냐의 역전골로 이어졌다.

이어 4분 뒤 역습 상황에선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던 브래들리 바르콜라에게 절묘한 왼발 아웃사이드 스루패스를 건넸다.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골키퍼 손에 맞고 크로스바에 맞아 득점에 성공하진 못했다. 만약 바르콜라의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됐다면 이강인의 어시스트로 인정될 장면이라 아쉬움은 더 컸다.

이강인이 존재감을 보이는 가운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후반 16분 이강인을 교체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워렌 자

PRIMAVERAING, S.A. 채용공고

▲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 부문	인원	자격 요건
영업 / 무역부	0	동일업종 경력자 우대 영어 & 스페인어 능통자 과테말라 거주자

▲ 제출 서류 및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진포함)
- 경력자의 경우 경력사항 상세히 기재요망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개별통지

▲ 문의처 및 서류접수

4028-5252 / cecy@ingprimavera.com

이르에머리가 투입됐다. 공교롭게도 이강인이 빠지자마자 PSG는 하피냐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더니, 후반 32분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에게 역전골까지 허용한 뒤 2-3으로 졌다.

이날 이강인은 61분 동안 2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모두 골문 안쪽으로 향해 상대를 위협했다. 패스 성공률은 무려 94%(34회 시도·32회 성공)에 달했고, 기회 창출도 3회나 됐다.

이같은 존재감에 스페인 매체도 박수를 보냈다. 발렌시아, 마요르카 등 스페인 무대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은 이날 PSG 이적 후 1년 6개월 만에 바르셀로나와 재대결을 펼친 경기여서 스페인 현지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경기 직후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이강인에게 별 2개를 매겼다. 마르카 평점은 별의 개수(0~3개)로 활약을 평가한다.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그리 많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평가였다.

PSG에선 평점 공동 1위였다. 이강인과 함께 비티냐, 누누 멘데스, 우스만 뎀벨레, 바르콜라가 별 2개를 받았다. 반면 아센시오, 잔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는 별을 1개도 받지 못했다. 바르셀로나에선 멀티골을 터뜨린 하피냐가 양 팀 통틀어 유일하게 평점 만점을 받았다. 나머지 대부분의 선수들은 팀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강인과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PSG와 바르셀로나는 홈·원정을 바꿔 오는 17일 오전 4시 8강 2차전을 치른다.

'3루타 포함 멀티히트'-'3번째 실책' 롤러코스터 김하성

지난 경기에서 삼진만 3개를 당한 김하성(29,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타격에서 3루타 포함 멀티히트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샌디에이고는 11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펫코 파크에서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를 가졌다.

이날 샌디에이고의 6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4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2호 3루타 포함 멀티히트. 또 시즌 4호 도루를 추가했다.

김하성은 2회 첫 타석 1사 1루 상황에서 카일 헨드릭스에게 3루 방면 내야안타를 때린 뒤, 후속타 때 2루를 밟았다. 이어 김하성은 곧바로 3루 도루에 성공했고, 잭슨 메릴의 내야땅볼 때 홈을 밟았다. 이에 김하성은 1-0에서 2-0으로 도망가는 득점을 올렸다.

이후 김하성은 0-0으로 맞선 4회 크리스토퍼 모렐 타석 때 실점의 빌미가 된 수비 실책을 범했다. 벌써 시즌 3번째 실책.

시카고 컵스는 2사 1루 상황에서 마이클 부시가 우중간 담장을 넘는 2점포를 때렸다. 김하성의 실책이 2실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김하성은 3-2로 앞선 4회 1사 2루 상황에서 헨드릭스에게 중견수 방면 3루타를 때려 수비 실책을 만회했다. 시즌 2호 3루타.

또 김하성은 후속 루이스 캄푸사노의 내야땅볼 때 4-2로 도망가는 득점을 올렸다. 김하성의 안타, 도루 득점이 적절한 시기에 터진 것.

김하성은 4회 이후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타선은 경기 막판까지 힘을 내며 두 자리 수 득점을 올렸다. 이에 샌디에이고는 10-2로 승리했다.

샌디에이고 선발투수 딜런 시즈는 6이닝 2실점 7탈삼진으로 이적 후 첫 승을 거뒀고, 헨드릭스는 5이닝 7실점으로 패전을 안았다.

공격과 수비의 명암이 엇갈린 김하성은 이날까지 시즌 15경기에서 타율 0.218와 1홈런 7타점 8득점 12안타, 출루율 0.290 OPS 0.672 등을 기록했다.

배우 류준열, 골프 마스터스 파3 콘테스트에 김주형 캐디로 등장

남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유명한 개막 전 이벤트 '파3 콘테스트'에 배우 류준열이 등장했다.

류준열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파3 콘테스트에 올해 마스터스 출전자 김주형의 캐디로 참여했다.

파3 콘테스트는 마스터스 개막 전 선수들이 대회장 내 9개의 파3 홀을 돌며 경기를 펼치는 이벤트다.

순위 경쟁보다는 '축제' 성격이 더 강해 선수들은 아내나 애인, 자녀 등 지인에게 캐디를 맡기기도 하고 이들이 선수 대신 샷을 하기도 한다.

교회를 통해 친분을 쌓은 인연으로 김주형의 캐디를 맡게 된 것으로 전해진 류준열은 마스터스 고유의 하얀 캐디복과 초록색 모자 차림에 김주형의 백을 메고 필드를 누볐다.

그린에서 김주형 대신 퍼터를 잡기도 한 류준열은 9번 홀(135야드)에선 직접 샷을 선보였다. 그는 티샷을 그린에 올리고 파를 작성했다.

이날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샘 번스(이상 미국)와 경

기한 김주형은 이후 소셜 미디어에 류준열, 동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류준열의 샷 영상을 올리며 '우리 형, 같이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 좋았어'라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올해 파3 콘테스트에서는 리키 파울러(미국)가 5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다. 2020년 이후 4년 만에 파3 콘테스트에 나선 파울러는 아내, 딸과 함께 참가해 멋진 추억을 남겼다.

최홍만의 K-1 라이벌 아케보노 향년 54세로 세상과 작별

스모 요코즈나(천하장사) 출신으로, K-1 링에서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과 세 번이나 싸운 아케보노 타로가 11일 세상을 떠났다. 1969년 5월 8일생으로 향년 54세.

미국 하와이 매체와 일본 매체는 "아케보노가 심부전으로 투병하다가 숨을 거뒀다"고 11일 보도했다.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아케보노는 죽음을 직감하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질 예정.

아케보노의 본명은 채드윅 하헤오 로완(Chadwick Haheo Rowan). 미국 하와이 출신이다. 키 203cm에 몸무게 230kg을 육박한 거대한 체구로 1993년 일본 스모 최초로 외국 국적의 요코즈나가 됐다.

모래판을 떠나고 2003년 K-1 격투기 무대로 전향했다. 순발력이 떨어져 격투기 무대에선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다. K-1에서는 10전 1승 9패 성적을, 종합격투기(MMA)에서는 4전 4패 성적을 남겼다.

최홍만과는 무려 세 차례나 맞붙었다. 한국 씨름 최강자와 일본 스모 최강자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흥행성이 컸기 때문이다.

최홍만에게 세 번 모두 고배를 마셨다. 2005년 3월 19일 K-1 월드 그랑프리 서울 대회에서 TKO패, 2005년 7월 29일 K-1 월드 그랑프리 하와이 대회에서 TKO패 했다. 홈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맛봤다.

2006년 7월 30일 K-1 월드 그랑프리 삿포로 대회에서도 KO로 져 상대 전적 3패가 됐다.

격투기 무대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는 2005년 3월 19일 K-1 월드 그랑프리 서울 대회에서 가쿠다 노부아키에게 판정승한 것이다.

2015년 12월 31일 라이진 연말 대회에서 밥 샙에게 판정패하고 링에 다시 오르지 않았다.



방 송 / 연 예

임영웅 상암콘 초고속 전석 매진 상암도 작다…전국 불효자 속출



가수 임영웅이 '상암벌'에 입성한다.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역시 티켓 전쟁 끝에 매진되면서, 표를 구하지 못한 불효자(?)들의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2024 임영웅 콘서트 'IM HERO - THE STADIUM(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 티켓 예매가 진행됐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매번 각 지역 별 티켓 오픈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석이 매진된다. 이에 임영웅 공연은 매번 '피켓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10일 오픈된 이번 콘서트도 대기 순서가 5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동시 접속자 수가 폭주했다.

이에 이번에도 임영웅의 팬들은 물론, 부모님을 위해 티켓팅에 나서 효도를 노리는 자녀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 실패 후기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임영웅의 콘서트는 오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낸다. 상암벌은 4만 5천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데, 대형 공연장임에도 티켓을 구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기 때문.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엄마 미안해", "대기인원 미쳤다", "대기가 줄어들지가 않는다" 등 실패 후기가 올라왔다. 그런 와중에 배우 박보영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예매 인증샷을 올리며 효도에 성공해 울고 있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게재, '금손'임을 인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치열한 티켓 전쟁 속, 임영웅 소속사는 티켓 불법 거래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암표 가격이 1장에 500만원을 웃돌아 충격을 안긴 바. 임영웅 측은 이번에도 단속에 나설 것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임영웅은 2023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를 통해 총 21회 차 콘서트로 약 22만 명의 팬들과 만났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5만 3000명의 영웅시대와 만났던 그는, 4만5000석을 수용하는 대형 공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틀간 더 많은 팬들과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선재가 故 종현? '선재 업고 튀어' → '살인자o난감' 특정 인물 연상 주의보

"본 작품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회사 및 단체, 그밖에 일체의 명칭,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드라마나 영화 시작 전 종종 등장하는 시청 주의 문구다. 국내 창작물에서는 상영금지 가처분이나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연상케 하지 않도록



축하합니다!!!

2023 졸업생, 조은비 학생

홍익대, 국민대, 성균관대 합격!





Angie Chung Atelier

시각예술로 가는 길. 앤지 정 화실



찰흙 도기 공예반, 돌조각반 모집중

전화: 5834-1414 카톡아이디: angienius@gmail.com

이메일: whenartistheway@gmail.com

주소: 6 Avenida 13-67 Z-10 Edificio Vasanta Oficina 321

6 Avenida (Donde Mikel 식당 앞길) 입구로 입장하여 신분 체크 후 3층으로 올라오세요.

극도로 주의하는 분위기다. 대상이 고인이나 정치인을 연상케 한다면 작품 자체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첫 방송된 tvN '선재 업고 튀어' 방송 후 일부 시청자들은 주인공 선재(변우석 분)가 지난 2017년 사망한 샤이니 종현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드라마는 유명 아티스트 선재가 사망하자 열성팬 임솔(김혜윤 분)이 그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08년으로 회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팬들은 '선재업고 튀어' 첫 방송 날짜가 종현의 생일인 4월 8일이며 여주인공 임솔이 샤이니 데뷔연도인 2008년으로 회귀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CJ ENM 측은 "'선재 업고 튀어'는 웹소설 '내일의 으뜸'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이나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첫 방송 편성 날짜는 기존 tvN 월화드라마 블록 편성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된 것일 뿐, 의도적인 설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원작과 달리 2008년을 회귀년도로 설정한 이유에는 "원작의 6년 전이라는 설정은 시대적 차이를 보여주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3년과 시대적 대비가 확실히 드러나는 2008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극 중 류선재가 데뷔한 연도는 2009년으로, 샤이니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재업고 튀어' 샤이니 종현 '살인자ㅇ난감'

지난 2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 ㅇ난감'은 7회에 등장한 부연건설 회장 형정국(승의열 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극 중 형정국이 백발을 뒤로 넘기고 안경을 쓴 모습이 이대표와 닮았다는 주장이다. 죄수복에 적힌 수감번호 4421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 4,421

억 원과 일치하며 형정국이 접견실에서 장어초밥을 먹는 장면은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부인이 법인카드로 초밥을 결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극 중 형정국 회장 죄수 번호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며 특정 인물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다.

연출자인 이창희 감독도 “비정치적인 작품에 감독의 정치 견해를 몰래 녹이는 건 아주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외국은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콘텐츠와 현실 세계를 상당 부분 연결시켜서 보는 관점이 있다”며 “그게 단점이면서 장점이기도 하다. 그만큼 과몰입해 콘텐츠에 개입하고 의견을 내는건 장점이지만 과한 개입이 억측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큰일 날 뻔" 투표날 아이돌★ 손가락, 숫자, 색깔은 NO

선거철을 맞아 아이돌 스타들도 숫자와 색깔 표현에 조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가 지난 5일과 6일 사전투표에 이어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이에 여러 스타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숫자와 색깔 표현에 조심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돌 스타들도 예외는 아니다. 10일 태민은 팬들과 유료 소통 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삼삼한 게 먹고 싶다", "삼계탕 먹고 싶다", "삼겹살도 먹고 싶다" 등의 메시



지를 보냈다. 이내 "아 헐"이라며놀란 그는, "사실 공연 삼회 한다고 스포한 건데 혹시나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라고 해명했다. 태민이 속한 샤이니는 오는 5월 완전체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태민은 콘서트를 앞두고 공연이 3회 진행 예정임을 귀띔해주고자 '삼'을 강조했던 것. 그러나 선거일과 겹치면서 오해를 살까 급하게 해명에 나선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2004년생인 뉴진스 민지도 생애 첫 투표권 행사를 인증했다. 그는 공식 계정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적힌 글 아래 '투표완료'라고 적힌 투표지를 든 곰돌이 그림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광고 영상에도 출연했던 민지는 귀여운 그림과 함께 투표를 인증해 눈길을 끌었다. 민지의 그림에도 역시 색이 모두 빠진 까만 곰돌이가 담겼고, 센스 있는 인증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위아이 용하도 유료 소통앱을 통해 멤버와 투표를 하고 왔다는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팬들의 말에 잘했다고 반응하며 빨간색 하트 이모지를 붙였던 그는 이내 파란 하트를 덧붙였다.

또 그는 노란색, 초록색 등 형형색색 하트를 또 보낸 뒤 "큰일 날 뻔", "방심했다" "땀 좀 닦고 오겠다" 등 '색깔' 표현에 조심하는 유쾌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HANA TOUR

❖ 세계 전 지역 항공원 - 멕시코 직항 / 한국출발 / 과테출발 / 전 세계 출발
❖ 세계 전 지역 패키지 여행 / 단체 패키지 여행
(쿠바 / 코스타리카 / 브라질 / 페루 / 유럽 / 칸쿤)
❖ 쿠루즈 여행

이희경(Edita Lee) 3042-6968 / 카톡아이디 editaguate
email : hanatourguate@gmail.com
5A. 16-35 #703 Plaza Pacifico Sur, Zona 14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여행~~

그밖에 앞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많은 아이돌들도 최대한 색을 배제하고 투표소에 나타난 바 있다. 더킹덤, 트렌드지, 82메이저 등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이들도 무채색의 옷을 입고 투표를 독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역 6개월 앞둔 BTS 제이홉, 빌보드 차트 입성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의 거리에 '빌보드 200' 기록이 추가됐다.

9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4월 13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지난달 29일 발매한 스페셜 앨범 'HOPE ON THE STREET VOL.1'이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5위로 진입했다.

제이홉은 지난 2018년 발매한 믹스테이프 'Hope World'로 '빌보드 200'에 처음 진입(솔로 앨범 기준)했다. 그는 2022년 내놓은 첫 솔로 앨범 'Jack In The Box'에 이어 이번 앨범까지 3연속으로 이 차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HOPE ON THE STREET VOL.1'으로는 자체 '빌보드 200'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HOPE ON THE STREET VOL.1'은 또한 '월드 앨범'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은 '톱 앨범 세일즈'와 '톱 커런트 앨범'에서는 나란히 미국의 팝스타 비욘세(Beyonce)의 신보 'Cowboy Carter'에 뒤이어 2위에 자리했다.

앨범 타이틀곡 'NEURON (with 개코, 윤미래)'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1위), '디지털 송 세일즈'(5위), '글로벌(미국 제외)'(38위), '글로벌 200'(84위) 등 여러 차트에 포진했다. 앨범 수록곡의 인기도 돋보인다. 특히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는 'NEURON'을 필두로 'i wonder... (with Jung Kook of BTS)'(2위), 'on the street (solo version)'(3위)', 'i don't know (with 허윤진 of LE SSERAFIM)'(4위), 'what if... (dance mix with JINBO the SuperFreak)'(5위)가 1~5위를 휩쓸었다. 정국이 피처링에 참여한 'i wonder...'는 '디지털 송 세일즈'(12위), '글로벌(미국 제외)'(132위)에도 들었다.

한편, 군백기에도 신기록을 세운 제이홉은 오는 10월 전역한다.



어렵게 임신한 김승현 부인 장정윤 "매정한 계모 돼…선 넘지 말라"

배우 김승현의 부인인 장정윤 작가가 '금쪽상담소' 방송 후 쏟아진 악플에 "매정한 계모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장정윤 작가는 10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했던 노력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다 자라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는 질투의 대상으로. 남의 집 가정사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서 남편은 비정한 아빠로, 나는 매정한 계모로. 평생 희생해 키운 할머니는 손녀를 감정쓰레기통으로 쓴 여자로. 과연 그럴까?"라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누구의 삶이든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빈이를 위해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해주시고 저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 깨달음도 있었다. 저도 노력한 부분 많은데 억울하지만 구구절절 말하지 않겠다. 이게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며 "다만 가족을 향해 선 넘는 말은 피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선 "저는 출연도 안 했고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는데 부녀의 친밀하지 못함이 중간 역할 못한 제 탓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무겁다"며 "중간 역할이라는 걸 알았으니 제가 또 노력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현이 저한테 꽉 잡혀 수빈이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들 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잡는다고 잡힐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답답함에 잠 한숨 못 자고 먹지도 못했다. 잘 헤쳐 나가며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중간역할인 제가 잘해보겠다"며 중"간역할의 의무와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이하 '금쪽상담소')의 '가족 화해 프로젝트'에 '원조 하이틴 스타' 김승현, 김수빈 부녀가 출연했다. 김승현은 곧 태어날 2세 소식을 전하며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세 번의 도전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힘겨웠던 시험관 시술 과정과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며 2세 탄생의 감동을 나눴다. 그것도 잠시, 2세 소식에 생각이 많아졌다는 김수빈은 곧 태어날 동생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할머니가 '너 키울 때 엄청 힘들었고 네 아빠도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만약 할머니가 (동생)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 나는 이 가족에게 축복받지 못한 건가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전했다.



김승현 부녀

'라스' · '골때녀' 총선 여파 결방→' 유퀴즈' · '나솔'은 그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방송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대거 결방했다.

10일 편성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KBS 1TV,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에서 선거 개표 방송이 진행돼 주요 프로그램이 모두 결방했다.

KBS 1TV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을 대체 편성하면서 '6시 내고향'과 '일꾼의 탄생', 일일드라마 '수지맞



은 우리' 등이 결방했다.

MBC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선택 2024'를 진행함에 따라 일일드라마 '세 번째 결혼', 교양프로그램인 '기분 좋은 날', '생방송 오늘 저녁',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가 결방했다.

SBS 역시 개표방송인 '2024 국민의 선택'을 편성했다. 이에 교양 '생방송 투데이'와 예능 '골 때리는 그녀'가 결방했다. JTBC에서는 '유명가수와 길거리 심사단'이 결방하고, TV조선에서도 예능 '아빠하고 나하고',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 신랑수업', MBN 고딩엄빠4'도 방송되지 않았다.

개표 방송을 진행하지 않는 KBS 2TV, EBS와 케이블 채널은 예정대로 프로그램이 전파를 탄다. tvN은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SBS Plus와 ENA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SOLO)'가 결방 없이 방송했다.

뉴진스 혜인, 부상으로 활동 중단… "발등 미세골절 진단"

그룹 뉴진스 혜인이 연습 중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스케줄을 중단한다.

지난 10일 소속사 어도어 측은 공식 팬 커뮤니티를 통해 "뉴진스 멤버 혜인 관련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말씀드린다"라며 "혜인이 연습 도중 부상을 입어 당분간 스케줄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어도어 측은 "혜인은 연습 도중 발등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며 "검사 결과, 미세 골절이 발견되었고 회복할 때까지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혜인은 당분간 스케줄을 중단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혜인이 소속된 뉴진스는 오는 5월 24일과 6월 21일에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를 발매할 예정이다. 특히 6월 26일과 27일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개최한다.

박상민 healthcare chlinic

가정의학과
박상민 헬스케어 클리닉



응급진료
왕진 / 특진



PRE ORDER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전예약 구매

진료시간 : 월~금요일 9 am~7 pm (예약필수)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9 am~2 pm (예약필수)
병원전화 : 2439-8225 응급전화 : 4004-6267
waze/goole/uber : 박상민 클리닉으로 찾아주세요.

교 민 장 터

교민장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테말라 거주 한국 교민들을 위한 무료공간 입니다

물품·부동산	**Z.4 Mixco Naranajo 내수공장 양도 5918-1272 5807-8465**	**Z.7 Portico 아파트 세놉니다 (방1 & 주방/거실) 살림일체 완비 월Q3,600 / 4067-7522**	Victoria 빨링 살림살이 일체 판매 whats 4877 - 6955
	전자레인지 구합니다 무료 또는저렴한 가격에 구하고 싶어요 전화 5632-5317	micro퀵보드(red)-Q300 mini2go delux plus (red, 의자)-Q200 판매 연락처 3128-0099	Nike Dunk 범고래 (남녀공용) Size : US 7 또는 250MM 미착용 상품 (상자 포함) Q 1,200 Tel 3114-3072
차량판매	2019 기아 세도나 흰색 아헨시아 57,000km, 무사고, 상태최상 Q230,000 / 5807-5191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풀 체인지 모델 2020년 3만킬로 아헨시아 팝니다. 4만 3천불 3065-9798	
구인구직	총무과 유경험자 (초보자 가능) 스페인어 가능 . 문의..5309-0021 .	신양편직(PALIN) 사무실 현황 관리직원 1명. 남녀불문 연락처 – 3007-2596	일자리 구합니다 공무기사 및 생산관리 기타 가능 / 3861-2275 sjyou227@gmail.com

(주)풍인 GSE Guatemala 신입,경력직 채용

1. 모집 부문 및 기간
- 미주 영업 관리 : 경력 3년 이상 0명 (의류수출벤더 경력자 우대)
- 미주 영업 관리 신입 : 1995년 이후 출생자 0명
- 채용시 까지

2. 자격 요건
- 모집 부서에 해당 하는 경력자
- 과테말라 거주자 및 해외 출장에 문제가 없는자
- 영어필수, 스페인어 능통자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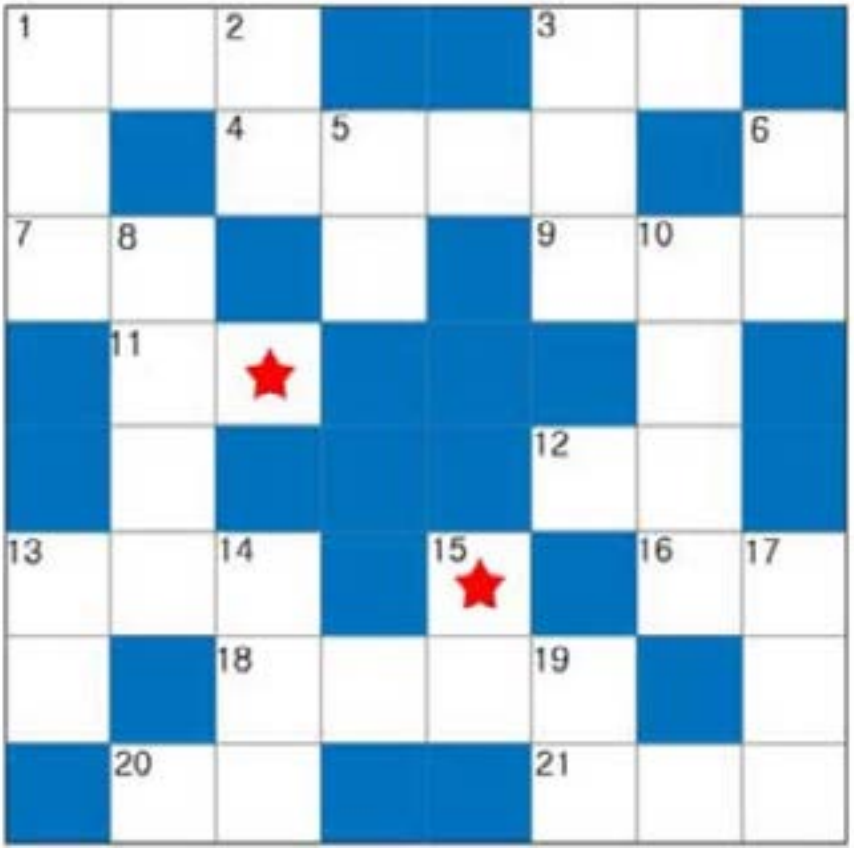
3. 제출 서류
- 이력서 : 국문 또는 영문
- 자기소개서 : 경력자는 경력관련 위주 기술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후 2차 면접 진행 합니다

4. 고용형태 및 근무 조건
- 정규직
- 주5일 근무
- 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은 면접시 협의가능

5. 문의처 및 서류접수
- GSE Guatemala 채용담당 annielee@gsent.co.kr

※ 최종 합격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이며, 허위 기재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낱 말 퀴 즈



지난 답



○목○벌

■ 가로열쇠

1.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
3.하천의 아래쪽
4.신종플루 치료제
7.통조림통 따위의 통
9.내리사랑은 있어도 ○○○은 없다
11.그날 당번으로서 직장을 지킴
12.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13.부스러진 쌀알
16.열렬한 정성
18.가게가 죽 늘어서 있는 거리.
20.말이 뜻하는 내용
21.본을 받을 만한 대상

■ 세로열쇠

1.수수의 줄기
2.중국 한말의 명의. 관우를 치료함
3.하루의 몫이나 분량
5.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6.대문간에 붙어 있는 방
8.삼국을 통일한 676년 이후의 신라
10.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
13.쌀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
14.어린아이의 다리 사이에 채우는 천
15.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
17.한철, 한창 쓰이는 철
19.끈이나 띠 모양의 물건. 장식에 사용

서 녀 전

별 탈 없으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으나 자칫 잘못하다 아들을 믿고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얼굴 붉히며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릴 적부터 쌓아 온 정이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다.

취선은 종종 생각하곤 했다. 심지어 자신도 마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데, 설마 송 이랑이 모를 리가 있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말끝마다 "다른 사람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 나만큼 마님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 내가 낳은 아들은 마님 배 속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네.'라는 것이다.

서장자가 막 태어났을 무렵, 마님은 크게 한시름 놓았었다. 송 이랑도 득의양양해 했다. 그러나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을 못 따라가는 법. 훗날 마님의 몸 상태가 좋아지고 난 뒤, 마님은 연달아 적자를 낳았고 부부 사이도 갈수록 좋아졌다.

이렇게 되자 서장자의 존재는 오히려 난처해지게 되었고, 송 이랑도 갈수록 불안감에 벌벌 떨게 되었다. 한참이 후 마님이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 보거라. 요 몇 년간 내가 그들 모자를 푸대접한 적이 있었더냐?"

취선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건데, 송 이랑이 먼저 마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마님께선 충분히 송 이랑에게 잘해 주셨지요. 똑같이 계집종에서 첩실로 승격된 거지만 성부의 향이랑과 장동 도련님이 먹고 입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송 이랑 모자는 적당히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비치는 듯했으나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마님이 취선의 손을 잡아당기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출가하기 전에 할머니께서 너를 내게 보내 주셔서 정말 다행이야.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네가 매일 나를 응원하고 위로해 준 덕에 겨우 버틸 수 있었어."

취선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노마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지요. 마님은 어질고 따뜻한 분이시니, 마님을 따르면 잘못될리 없다고요."

주인과 종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취선은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참, 마님께선 아직 제게 분부하신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님이 이마를 짚고 입술을 깨물고는 웃으며 취선을 꾸짖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랑 잡담하다 보니 이야기가 한참 멀리 나갔어. 어서, 어서 말해 보거라. 오늘 아침 일찍 사람을 보내 살펴보라고 했는데, 묵란이는 어떻다더냐, 낳은 게냐, 아니냐?"

취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전 내내 진통하시다가 또 따님을 낳으셨답니다."

마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 또 딸을 낳은 게야! 벌써 네 명째로구나!"

취선도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연달아 딸만 넷이라니 이건 정말이지 하늘을 원망해야 할 판이다.

다행히 묵란 아가씨는 친어머니로부터 전수 받은 게 있어서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고 있을지언정 어쨌든 남편은 제곁에 붙들어 두고 있었다. 그저 임 이랑이 물려준 수완이 쓸 만해서 계속 남편을 꽉 붙들고 아이를 낳을 수 있기만 바랄 따름이다. 마님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힘없이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명란이는 연달아 아들만 낳는데, 묵란이는 딸만 줄줄이 낳고 있으니."

취선이 조용히 말했다.

"들리는 바로는 묵란 아가씨가 처음 유산했던 아이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마님이 혀를 차더니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두 해 전에 묵란이가 또 유산했었는데, 이미 사내아이 형상을 갖춘 태아였다지."

묵란 아가씨의 회임 능력은 사실 대단했다. 비극은 하필이면 유산한 아이가 모두 남자아이였고, 낳은 아이는 모두 여자아이라는 데 있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젠 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 제19대 재 과테말라 한인회장 선거 공고 >>

제19대 과테말라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한인회장 선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 일시 : 추후 공지 예정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2. 투표 장소 : 한인문화회관
3. 후보자 등록:
   1)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24년 4월 9일(화)부터 2024년 4월 22일(월) 오후 5시까지 (토, 일요일 제외; 10일간)
   2) 제출서류:
      가)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관위 사무실에 비치), 나) 무범죄 증명서 (대사관), 다) 재외동포등록 등본 및 거주확인서 (대사관), 라) 추천서 (추천인명부에 50인 이상의 추천인이 직접 서명 날인 필수)
   3) 입후보자 등록서류 교부 및 제출처 : 한인회 사무실
   4) 입후보자 공고: 2024년 4월 24일(월)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후 해당 주 발행 교민 언론에 공고함)
4. 후보자 자격
   1)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자,
   2) 선거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또는 소지했던 자, 과테말라 영주권 소지자 또는 한인 혈통으로 과테말라 시민권자로 한다.
   4) 한인회 정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하지 않았거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5. 추천 : 정회원은 입후보자 1인 한하여 추천할 수 있음. (2명 이상의 입후보자 추천시 무효 처리)
6. 한인회 정회원의 정의: 과테말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동포로 한다.
7. 후보자 공약 발표: 2024년 5월 2일(목)부터 2024년 5월 7일(화)까지 교민 정보지에 게재
8. 입후보자 자격박탈 및 당선자 무효처리: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자격이 박탈되며, 당선 이후에도 자격박탈 사유 판명시, 당선 무효 처리함
   1) 입후보자 등록서류 허위 작성 제출
   2) 금품살포, 상대후보 인신공격등의 부정선거 실시
   3)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4) 기타 선관위에서 부적격자라고 판단된 경우.
9. 투표권자의 자격: 정회원
10. 투표권자 신원확인: 투표권자는 투표당일 여권 또는 영주권, 과테말라 운전 면허증면허증을 지참, 선거장소에서 선관위에 제시해야 함.
11. 선거방법:
   1) 선거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함.
   2) 단독 출마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선자로 확정함.
12. 기타 제반사항은 선거 관리 규정에 준하여 선거를 실시함.

제19대 재 과테말라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이은덕, 위원 : 김혜경, 박성자, 소영민, 정지아, 이채은, 김현수

들지 않는구나. 그저 묵란이가 좀 더 철이 들고, 첩들과 다투지 말고, 몸조리를 잘해서 다음에는 아들을 낳기만 바랄 뿐이야."

마님이 연신 한숨을 쉬었다. 취선의 눈가에 웃음기가 어렸다. 요 몇년간 마님은 점점 더 온화하고 자애로워지고 있었다. 심지어 임이랑에 대한 원한마저도 바람에 실려 흩어진 느낌이었다. 마님은 한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복과 덕을 쌓고 싶어 했다.

"딸 하나에 아들 하나 있는 여란이가 제일이지. 하나씩 갖췄다고 명란이가 부러워하지 않더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명란 아가씨는 여란 아가씨를 부러워하시지만, 여란 아가씨는 오히려 명란 아가씨를 부러워하시니까요." 마님이 가볍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제부가 명란이를 만지면 닳을까 불면 날아갈까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니 그렇지. 한시도 안 떨어지려 한다지. 그에 비해 여란이 쪽은 제부가 때때로 여란이를 자극하지 않느냐. 저번에 제부의 상관이 첩실을 보내 줘서 여란이가 한바탕 난리를 쳤다던데,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취선이 듣다가 웃음을 터트렸다.

"여란 아가씨도 첩실을 용납하지 않는 분은 아니지요. 그래도 문가 나리께선 첩실을 들이시려면 꼭 여란 아가씨의 허락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젓번의 그 둘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진실하고, 본분도 지킬 줄 아니까요."

"여란이는 명란이와 겨루고 싶은 게야!"

마님이 말했다.

"하지만 어디 명란이와 경쟁이나 되겠느냐. 제부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성미도 대단히 집요한 데다 남이 자기 집 가정사에 끼어드는 걸 가장 못 견디는 것을."

화란은 문득 어느 해의 일이 떠올랐다. 촉왕은 제부에게 미인 둘을 보냈다. 제부는 그 미녀들을 장가 못 간 병졸에게 주었다. 훗날 촉왕이 또 네 명의 무희를 보냈다. 제부는 맛있는 음식과 마실 것을 먹여 살을 찌우고, 어느 날 집 안에 주연이 열렸을 때 불러내어 춤을 추라 했다. 촉지방의 고관과 귀인들 절반이 모두 그 광경을 보고 촉왕부가 사람을 잘 가르친다며, 하나같이 재색을 겸비한 미인들이라고 칭찬했다. 예전에 녕원후부에 있던 봉선 낭자라던가 하는 여인을 떠올린 화란은 슬쩍 웃음을 터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훗날 왕이 노하여 제부를 음해하려 들었다. 그러나 제부의 상소가 한발 빨랐다. 일찍이 장풍이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그 상소의 요지를 풀이해 주었다.

'폐하, 소신은 촉왕이 꽂아 준 여인을 남에게 주었다가 촉왕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다 소신의 죄이옵니다. 황가가 내린 것은 설사 그게 요강일지라도 제멋대로 남에게 넘기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소신은 촉왕이 두 번째로 보낸 여인을 남겨 두고 자주 사용했던 것이옵니다. 주연에 온 손님들이 보고 모두 좋아하였사오나, 촉왕은 또 불쾌해하며 소신이 그가 보낸 여인들의 정확한 사용법을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며 질 책하였사옵니다. 폐하, 현재 촉왕은 소신이 어떻게 집안의 여인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관리하려 들고 있사옵니다. 이러다 나중에 소신이 어떻게 휘하의 군대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관리하려 들지 않을지요?

폐하, 소신은 참으로 첩실을 들이고 싶지 않사옵니다. 소신은 일찍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죗값을 충분히 치루었사옵니다. 집과 가족을 잃었지요. 이는 폐하께서도 모두 아시는 바일 것이옵니다. 소신은 첩실을 들이고 싶지 않사오나 촉왕은 부득불 소신에게 첩실을 들이려고 하옵니다. 소신이 첩실을 들이는 것이 촉왕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소신은 폐하를 위해 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하느라 어린 아들의 글공부를 봐줄 짬조차 나지 않사옵니다. 계속 이러다간 또 경성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의 큰형과 둘째 형처럼 황자님 곁에 두면 황가의 스승님께서 봐주실 테니 소신이 안심할 수 있을 터인데, 폐하....., 제 아들놈을 한 명 더 거둬 주시겠사옵니까?'

오토바이 심부름 센터

시간과 비용절약 ~ 인원 절감 효과까지 ~

과테 시내 Z.1~Z.15 Q40 / Z.16~Z.18 Q60
Villa Nueva, San Juan Sacatepequez, 엘살바도르길 Q70
Amatitlan Q90, Palin & Chimaltenango Q120



❖ 이 요금은 시내 Z.9 & Z.10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시외 위성도시 간 요금은 위치에 따라 개별 합의해야 함.

1kg 이상은 추가 요금 부과 / ☎ 3484-5750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연합

(가나다 순)

다 메 섹 선 교 교 회



금요성경공부 : 오후 8시

주일 낮 예배 : 오전 10시40분

기도모임 : 화요일 저녁 8시

21Calle 13-15 Z.11 Col.mariscal

담임목사 김기택 전화 : 2473-3968, 5511-65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과 테 말 라 사랑의교회



주일 1부예배 :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 오전11시

금요 기도회 : (금) 오후 8시30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 (토)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 (주일) 오후 1시

새벽예배 : (월-금) 새벽 5시

주소: 17Ave 28-92 Zona 12

담임목사 이정로 교회 : 2293-210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 오전 10시 30분

주일학교 : 오전 9시 30분

새벽예배 : 오전 5시/월~금

주소: 18 Calle 5-92 Col.Mariscal Z.11

담임목사 박필종 목사 : 5705-6646

제 일 교 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2, 4주) 오후 1시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시

전교인기도회: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토요 공부방: 토요일 오전 9:30~12시

주소: 0 Ave 9-41 Z.9

담임목사 이병성 교회 : 2362-8565

과 테 말 라 미주한인장로회 주님의교회



주일예배(오전 9시 30분)

수요·금요 기도회(오후 8시)

새벽기도회(오전 6시) 월~토요일

** 실시간 라이브 톡으로 방송설교 **

Tel: 3029-1722 카톡ID: open21u

주소: 44 Calle 3-42 Z.12 Monte Maria 1

담임목사 양철호 E-MAIL: open21me@gmail.com

GUATEMALA CITY 평강교회 IGLESIA de LA PAZ

www.gupc.org



- 주일, 오전 8시(1부), 오전 11시(2부)
- 주일, 어린이 예배 - 오전 11시
- 수요, 저녁예배 - 오후 8시
- 금요(1,3주) 기도와 찬양 - 오후 8시
- 토요, 새벽기도회 - 오전 5:30

11Ave. 29-46 Zona12. El Bosque

USAC 입구 ☎ 2476-5772, 4677-4399

(최유찬 목사)

재미한인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하비스트교회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

-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주일학교 : 오후 1시
- 수요신앙강좌 :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
- 새벽기도회 : 월~금 5시 30분

담임목사 : 서동오, 연락처 : 4067-1051, 2292-3662

주소 : 4 ave 'a' 14-76 Zona 14 (웨이즈 : 하비스트교회)

대한예수교 장 로 회 과테말라한인교회



2024년 표어 :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주일 1부 : 오전 9시 / 주일 2부 : 오전 11시

요셉학교(13~18세) : 오전 10시 30분

야곱(9~12세)/다니엘(5~8세) : 오전 11시

꿈의(2~4세)/씨앗(0~24개월) : 오전 11시

금요기도회 : 저녁 8시(2~5주)

토요월삭기도회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새벽 6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월~금)

담임목사 김디모데

37Ave 3-36 Colonia El Rodeo Zona 7

교회 : 2433-4533, 2432-1449



읽는 방향











부모님을 지켜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환절기인데 건강조심하세요.
전화 자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6개월후.. 정병장의 편지





이곳 생활이나 제가 하는일 등
자질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유래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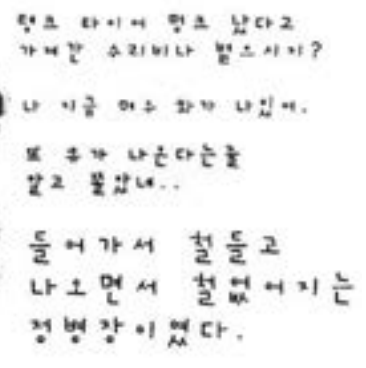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는지.
활동량이 줄다보니 살만쪄서 큰일입니다.



아들내미는 몇개월 후
집에갑니다.캬캬
제밥 차려 주시길...
이만 뿅!!







2024년 4월 11일 [3.3] 목요일

오늘의 운세



성실한 마음으로 궂은 일에 앞장서니 모두가 호감을 갖고 진정으로 따른다. 72년생 일을 열심히 하면 상사의 눈에 띄는 행운이. 60년생 지금의 능력에 약간의 위엄을 더한다면 더욱 순탄할 것이다. 아랫사람이 스스로 반성하게 하라. 가까운 사람과의 다툴 수 있으니 주의하라.



지금은 아무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도 전달되지 않는다. 73년생 친구에게 사소한 오해로 미움받을 수.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아라. 61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다음 파도를 기다려라. 좋은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 모처럼 시작한 사업이 정체 상태. 당분간은 어려울 듯.



놀러 가는 계획은 좀더 미루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 74년생 부부 또는 연인간의 관계가 순탄치 않다. 62년생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은 아직 모자란다. 조금 더 준비하라. 50년생 기다리는 사람은 건널수 없는 강가에 있다. 곧 돌아온다.



겉보기에는 건강하나 운동부족으로 몸이 약해지고 있다. 75년생 애정문제에 대해 큰 기대는 걸지는 말라. 63년생 보증 문제로 고생이 예상된다. 이미 벌어진 문제는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히 것이다. 51년생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 생활패턴을 바꿔야한다.



자기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맡아 곤란을 당한다. 76년생 부모에게 대들지 말라. 자신을 낮춰 원만히 해결하라. 64년생 실수는 병가지상사.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얼굴을 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라. 52년생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정기 검진을 꼭 받아라.



삭막한 마음이다. 증권이나 투자가 법에 접촉될 수 있다. 77년생 즐겁고 신나는 일. 그러나 그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65년생 이사를 가거나 놀랄 일이 생긴다. 청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53년생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상대를 대하지 않으면 성사될리 없다.



첩첩산중. 뚝심이 필요하다. 적과의 불꽃 튀는 싸움이 예상된다. 78년생 사랑에 라이벌이 생긴다. 물러서면 잃는다. 싸워서 차지하라. 66년생 실력 부족으로 패배를 당한다. 자기 분야의 공부를 더하라. 54년생 위태로운 상황이다. 매사에 조심하라. 투기성 사업은 금물.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하루종일 희비가 엇갈린다. 79년생 용돈은 타지만 지갑을 잃어버리는 격. 술 마시고 돈 없어 망신. 67년생 남모르게 닦아온 숨은 실력을 발휘하여 주위를 놀라게 한다. 55년생 세상 만사가 귀찮다. 외식은 불리하다.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라.



자신을 한 단계 낮추어 행동하라. 애정운이 피어날 곳은 스포츠 경기장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그런 기회를 갖게되면 반드시 사랑이 이뤄질 것이다. 68년생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따르라. 56년생 그동안의 노력이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처자식에게 선물을 한아름.



돌다리도 두들겨보라.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 그러나 애인과의 데이트로 즐겁다. 69년생 겉으로는 이익이 있어 보이나 실속이 없으니 마냥 기뻐하지만은 말라. 57년생 직업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개인사업가, 돈이 비오듯이 쏟아진다.



고생 끝에 낙이온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싱글은 혹시나 해 나간 미팅, 역시나 아니다. 70년생 회사에서는 상사로부터 칭찬. 집안에는 웃음꽃이 핀다. 58년생 사업은 잘 되지만 이성으로 인한 재물 손실이 있다. 유통업종사자, 사업과 가정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



이룰수 없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7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자기만 손해다. 59년생 회사에서 생각 없는 일 처리로 엄청난 손해를 보니 신중히 하라. 과로로 인한 건강 이상이 우려된다. 주의하라. 약간의 휴식은 약이 된다.



복사기 임대

잉크빠이스

- 문의전화 -
2439-3692
4234-0057

KOH

Clinica Dental

치주 질환 치료
신경 치료 · 치아 발치
교정 · 보철 · 미백

2485-6718
2485-6719
3148-1105
Calzado Roosevelt 35-98 Zona 7
Hospital de Día Itzamná Clinica # 5



Dr. Fernando Azmitia



Dr. Eugenia Azmitia

SUMMER

20%

스케일링
할인쿠폰

1인 1쿠폰 / 4월 한 달

273.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구원의 본질을 한 구절 속에 요약한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3:16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말씀입니다. 실로 위대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섭리를 압축한 성경 구절입니다.

1. 하나님이

'하나님' 은 **'성부(聖父) 하나님'** 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데오스'** 이며, 구약의 **'엘로힘'** 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입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시며, 삼위(三位)가 계시니, 곧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령(聖靈)** 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고, 창조한 것들을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2. 세상을

세상(世上)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입니다. **'코스모스'** 는 우주를 포함하여, 타락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포괄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코스모스는 우주를 가리키며, 구약성경의 '하늘과 땅' 의 동의어입니다.
둘째, 코스모스는 인류의 거처, 사람들이 사는 영역으로서 지구를 의미합니다.
셋째, 코스모스는 사람들과 인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16**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사는 사람들 전체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9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죄'** 는 '세상 사람들의 죄' 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17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도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는 헬라어로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으로, 요한복음 3:16**을 시작하는 강렬한 첫마디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이처럼 사랑**' 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안정수(pauloahnguate@gmail.com /3040-7432)
※성경공부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이전의 원고들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논리퍼즐

난이도 : 쉬운 단계

1		7	4		5		6	9
2			7				8	
	9				3		7	
	7				8	4		1
	4		3	2			9	
8		3		1			2	
	2		1				4	
	8				2			3
6	1		8		9	7		2

난이도 : 어려운 단계

1				6			8	
9					5		1	
					9	2		
	7		1			3		
	5			2			4	
		9	7		3		5	
		7	8					
	6		5					4
	3			9				1

오늘의 스도쿠 정답

쉬운단계정답

2	5	7	9	3	8	4	1	6
3	1	6	2	4	5	9	8	7
8	4	9	6	7	1	5	2	3
7	2	5	4	1	9	3	6	8
9	6	8	7	2	3	1	4	5
1	3	4	8	5	6	2	7	9
5	7	1	3	6	2	8	9	4
4	8	3	5	9	7	6	3	2
6	9	2	1	8	4	7	5	1

어려운단계정답

1	7	8	4	9	6	2	3	5
4	3	9	2	7	5	1	6	8
6	2	5	1	3	8	7	9	4
8	5	6	3	4	7	9	1	2
7	4	1	9	2	6	8	5	3
2	9	3	8	5	1	4	7	6
5	6	2	4	1	9	3	8	7
3	1	7	5	8	2	6	4	9
9	8	4	7	6	3	5	2	1

유머

울지않는 장닭

취미겸 부업으로 닭을 기르는 사람이 있다. 어느 날 장닭이 늙어 죽자 주인은 새로 듬직한 닭 한마리를 사왔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록 새벽녘이 되어도 장닭은 전혀 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주인은 닭을 산 가계에 가서 물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상인이 물었다.
"댁에 닭장이 따로 있습니까?"
" 네, 물론입니다. 닭장이 널찍하고 아주 편하답니다."
"암닭은 있습니까?"
"잘 생긴 암닭이 열마리나 됩니다."
"모이는 잘 주셨나요."
"그럼요, 하루도 거르지않고 매일 영양가 있는 사료를 듬뿍듬뿍 줍니다."
"그러니 장닭이 울지 않지요. 잘 생각 해보세요. 세상에 집이 있고, 마누라 있고, 먹을 것 넉넉한데 또 뭐가 부족해서 울겠습니까.???"

하나 엔지니어링

문의 : 오오이팔 - 이사일삼 / E-mail : hanaeng2004@gmail.com

◀ 최고급 콤퓨레셔 전용 오일 판매 ▶

*100% Full Sintético(합성유)
*콤퓨레셔 수명연장
*길어진 사용시간
*우수한 열 안정 성능
*탁월한 산화 안정 성능
*탁월한 수분리 성능
*탁월한 방기/소포 성능
*우수한 내마모 성능
*광범위 온도 범위 사용
*씰 (Seal), 각종 고무재질과의 상용성
*소비전력 절감
*탄화 잔류물 미생성

레스토랑 Rio 차림표

1인용 압력솥밥

★ 백미솥밥, 현미잡곡
★ 곤드레 솥밥, 영양솥밥
★ 시래기 솥밥, 누룽지
★ 최고급 불판 숯불구이

스페셜 메뉴

★ 얼큰 육 계 장
★ 얼큰 홍합 깜뽕
★ 싱싱한 "활어회"

아침식사 가능 7:30 부터 영업 / 뷔페예약 & 행사음식 예약 가능

예약문의 : 사일오일-칠삼육팔 , 칠칠구일-일육팔팔, 사일오일-칠삼구사

PALIN-00, CARRETERA A PALIN KM 39.37
CA-9 SUR A, MA-04B Palin, Escuintla

waze "El encuentro palin"

소나 7 아람 옆
로데오마트2호점
22215364
아주편리한 위치

한인교회 길목
로데오마트본점
24339015
총 본점 물건이 가장 많아요

소나 14 바로옆
로데오마트3호점
23670137
아람입점마트

맛있는 쌀
12월30일 입하





좋은 품질의 저렴한 햅쌀을 로데오에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햅쌀로
시작하는 2024년
새해에도 건강해용

